

시작과 끝

Bidayah wa Nihayah

시작과 끝

Bidayah wa Nihayah

Prof. Dr. Abdurrahman Al-Sheha 저

최영길 옮김

역사 프로필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 학부와 석사과정에서 아랍어를 전공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왕립 이슬람대학교 학부과정에서 이슬람학을 전공하고 수단 움두르만 이슬람 국립 대학교에서 한국인 최초로 이슬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우디아라비아 젓다 이슬람문화원에서 아랍어와 이슬람 담당 전임교수로 근무하였고 이맘 무함마드 이븐 사우드 왕립대학교 초청객원교수, 명지대학교 인문대학장, 중고등학교 아랍어 국정교과서 교재 편찬 심의위원, 숲사랑소년단 이사장, 국제자연환경 교육재단 이사장, 태평양 및 동남아시아 이슬람회의 기구 집행이사, 그리고 IMAX 벤처기업과 LG 전자 자문교수로 있었다.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서강대에서 이슬람관련 과목을 강의하였고 (재단법인)한국이슬람교 사무총장과 할랄위원장을 지냈다.

현재는 명지대학교 아랍지역과 명예교수, 메카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전세계 이슬람 총연맹 최고회의 위원, (재단법인)한국이슬람교 이사장, (사단법인)숲사랑소년단 이사, 관련기관 및 연구원에서 주최하는 할랄과 이슬람 문화, 할랄과 인증제도 강사로 있다.

저술 및 역서로는 꾸란의 의미 번역을 비롯하여 예언자 무함마드, 인간 무함마드, 다양한 이슬람 이야기, 무함마드의 언행록, 아랍어-한글 사전, 꾸란 어휘사전, EBS 입에서 톡 아랍어, 이슬람문화, 아랍에서 출발한 이슬람 역사와 문화, 꾸란과 성서의 예언자들, 이슬람의 허용과 금기, 초보 무슬림을 위한 길잡이, 이슬람 지식, 인생교과서 무함마드, 이슬람과 에티켓, 이슬람의 로맨스 등 74편의 아랍어와 이슬람 관련 역사와 저술을 두고 있다.

1970년도에는 박정희 대통령 메달을 받았고, 1986년에는 서울 아시아 올림픽 조직위원회 포상, 2009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압둘라 국왕 국제번역상을 수상하였으며 2013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표창 그리고 2014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녹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하였다.

역자 서문

2014년 12월 중순 경 일면일식도 없는 사우디아라비아 킹 사우드 대학교 압두라흐만 쉐하(Prof. Dr. Abdurrahman al-Sheha) 교수님의 국제전화 한 통화가 인연이 되어 그분께서 저술한 값진 세 권의 책을 우리말로 번역하였다. 세 권의 책이 번역 출간될 때까지 단 한 번도 그 교수님을 상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아주 가까운 동료 교수가 된 느낌이다. 만난 적은 없는데 마음으로는 오래된 옛 친구 같은 생각이 든다.

옷깃만 스쳐도 전생애 인연이 있었다는 말이 있듯이 전화 한 통화만 주고받아도 인연이 맺어지는 것 같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인연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기 전부터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미래에 일어날 현상까지 모두 알고 계신다. 이슬람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까다(qada)와 까다르(qadar)라고 한다.

첫 번역서 『이슬람의 메시지와 에티켓』을 시작으로, 『이슬람의 로맨스』, 『행복으로 가는 길』에 이어 이번에는 『시작과 끝』이란 제목으로 네 번째 책을 번역하였다. 다른 책들 번역에 들어가면서 그랬듯이 본서 역시 공부하는 마음으로 번역에 들어가

2016년 5월 26일 10시 30분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Berjaya Times Square 호텔 2003호에서 초기 번역을 마칠 수 있었다.

저자는 꾸란과 예언자의 언행록에 근거하여 우주와 최초의 인간은 누구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고 인간의 삶은 누구에 의해 시작(bidayah)되었으며 누구에 의해 끝(nihayah)이 나는가! 우주를 존재케 한 실체는 어떤 분이신가 영혼이란 무엇이고 현세의 삶은 무엇이며 죽음 이후에 어떤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되는 가를 쉽고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끝으로 이슬람문화사업, 특히 장학 사업에 끊임없는 후원을 아끼지 않는 고팔용 사장님과 어느 날 천사처럼 나타나 이슬람문화사업 후원을 약속하면서 5명의 한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여 달라고 일정금액을 위탁했으며 노트북까지 기증하여 주신 김희상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서 번역도 김희상 선생님께서 기증하여 주신 노트북으로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차 례

* 역자서문 / 5

* 들어가면서 / 9

1.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 18
2. 하나님(Allah)은 어떤 분이신가 / 19
3.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 / 27
4. 가시계의 첫 창조 / 42
5. 천지창조 / 43
6. 천사들 창조 / 47
7. 진(jinn) 창조 / 51
8. 아담 창조 / 53
9. 아담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 55
10. 아담의 모습 / 58
11. 아담의 자손들은 왜 서로 다른가 / 59
12. 어머니의 시조 하와(Hawa: 이브) 창조 / 60
13. 아담과 하와의 가정 / 61
14. 예언자와 사도 파견 / 62
15. 인간이란 무엇인가 / 67
16. 인간이 탄생하는 단계 / 71
17. 인간은 무엇으로 탄생되는가 / 72

18. 인간으로 탄생하는 단계 / 74
19. 영혼이란 무엇인가 / 79
20. 현세의 삶이란 무엇인가 / 83
21. 인간과 진(jinn)들을 창조한 목적은 무엇인가 / 88
22. 끝(nihayah) / 91
23. 죽음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 94
24. 부활 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 100
25. 꾸란에 언급된 소생과 부활의 증거 / 107
26.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 110
27. 이슬람이란 무엇인가 / 111
29. 이슬람의 오행('amal: 五行) / 113
30. 이슬람의 육신(iman: 六信) / 121
31. 이슬람의 사도는 누구인가 / 138
32. 꾸란이란 무엇인가 / 141
33. 이슬람과 지식 / 145
34. 이슬람과 재물 / 147
- *나가면서 / 150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¹⁾의 이름으로

인간들이여 무엇이 너희의 주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들었느냐
너희를 창조하사 완벽한 형상을 만든 후 균형을 이루게 하여주신 분
이 누구시뇨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뜻하시는 대로 너희의 형상을 만드
셨느니라(82:6-8)²⁾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무함마드를 소개하시면서 예언자의 권위와
품위를 떨어뜨리는 언행을 삼가라고 하셨다.

예언자의 말씀에 의하면 인간은 아담의 자손이며 아담은 흙으로
창조되었다.

“모든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아담은 흙으로 창조되었
습니다.”(아부 다우드, 티르미지)

-
- 1) 시작과 끝이 없이 존재하며 우주와 인간을 존재케 한 절대자 창조주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무함마드가 구세주로 믿었던 성부와 성자를 두지 않은 일위일체의 유일신을 가리킨다(역자 주)
 - 2) 꾸란은 아랍어로 기록된 신성한 경전을 일컫는다. 그러므로 번역서는 꾸란이라 하지 않는다. 본서에 인용된 것은 꾸란의 원문이 아니라 역자의 상식과 지식으로 번역한 의미에 불과하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 번역한다 해도 꾸란 원문의 뜻을 완벽하게 전달하기란 불가능하다. 불완전하고 제한된 인간의 지식으로 완벽하고 무한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번역된 내용이 이해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랍어로 된 꾸란 원문을 참고하기 바란다(역자 주)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오늘날까지 생명과 우주의 기원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오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슬람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에 대하여 답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무슬림은 우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현상에 대하여 혼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설을 내세우거나 새로운 이론을 만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떠한 가설이나 새로운 이론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분명한 해답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이다.

무슬림은 이 주제와 관련하여 꾸란에 언급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을 확고히 믿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관련한 다른 견해들이 모두 허위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시계와 불가시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나 피조물은 그분을 필요로 한다.

사람들이여 하나님을 필요로 한 자는 너희들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족하신 분이시며 모든 찬양을 홀로 받으실 분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너희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세대를 두시니라 그렇게 하심이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35:15-17)

이에 대한 믿음과 바른 언행을 통하여 유익함을 얻을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불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필요로 하지 아니 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종들이 불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니라 너희가 믿는 자가 되어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것으로 기뻐하시니라(39:7)

다음은 이와 관련한 신성 하디스(hadith qudsi)³⁾의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종들이여! 나는 나를 위해 억압(dhulm)을 금지하고 너희에게도 금지하노라.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억압하지 말 것이라. 나의 종들이여, 나의 안내를 받지 못한 자는 모두가 방황할 것이라. 그러므로 나에게 안내를 간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안내하여 줄 것이니라. 나의 종들이여, 내가 양식을 베풀지 아니하면 너희 모두는 굶주릴 것이라 그러므로 나에게 양식을 간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줄 것이니라. 나의 종들이여, 너희가 입을 옷을 내가 주지 아니하면 너희는 벌거벗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입을 옷을 나에게 간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입을 옷을 줄 것이니라. 나의 종들이여, 너희는 밤낮으로 죄를 범하고 있노라. 내가 죄를 용서하여 주느니라. 그러므로 나에게 간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줄 것이니라.

나의 종들이여, 나를 해치려 해도 나를 해치지 못하고 너희가 나에게 유익함을 주려해도 나에게 유익함을 주지 못하니라. 나의 종들이여, 처음에 온 자부터 마지막으로 온 자까지의 모든 인간과 진(jin)들과 너희 중에 가장 경건한 자들이 모두 합쳐도 나의 왕국은 티끌만큼도 증가되지 않느니라. 나의 종들이여, 처음에 온 자부터 마지막으로 온 자까지의 모든 인간과 진(jin)들과 너희 중에 가장 사악한 자들이 모두 합쳐

3) 하디스(hadith)는 예언자 하디스(hadith nabawi)와 신성 하디스가 있는데 전자는 지구와 의미 모두가 예언자 무함마드로부터 비롯된 그분의 말씀, 행위, 인정, 묵인, 시인, 품성을 따르고 후자는 자구는 예언자에서 비롯된 것이요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말한다(역자 주)

도 나의 왕국은 티끌만큼도 감소되지 않느니라. 나의 종들이여, 처음에 온 자부터 마지막으로 온 자까지의 모든 인간과 진(jin)들 모두가 한 곳에 모여 나에게 간구한다면 나는 각자가 원하는 것들을 줄 것이니라. 그래도 내가 가진 것은 바닷물에 바늘을 담근 후 뺏을 때 묻어나온 물기를 제외하고는 줄어들지 않느니라. 나의 종들이여, 내가 계산하는 것은 너희의 행위와 업적이며 그것에 따라 보상을 하느니라. 그러므로 좋은 것을 발견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요 그것 아닌 다른 것을 발견한 자는 오직 자신을 책망해야 할 것이니라(무슬림)

이슬람은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종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규범이다. 또한 이슬람은 정신과 육체가 균형을 이루는 삶을 추구한다. 내적인 삶과 외적인 삶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사생활과 공공생활의 삶도 역시 그래야 하고 현세의 삶과 내세의 삶은 더욱 그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극단주의를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과 규범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생활의 종교를 내리셨다.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의 종교를 완성했고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였으며 이슬람을 너희의 종교로 만족케 하였느니라(5:3)

그러므로 완성된 이 종교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자는 편안함, 스스로의 만족과 정신적 안락함을 느끼게 된다. 이를 실천하여 모범을 보이실 예언자를 보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나는 그대(무함마드)를 모든 인류를 위한 자비로서 보냈느니라(21:107)

예언자의 모범을 본받아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저 세상에 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은 파라다이스(천국에서 가장 높은 위상의 천국)에서 살 것이라(18:107)

하나님께서서는 종말이 올 때까지 꾸란을 보존하고 이슬람이 부패하는 것을 보호할 것이라고 하셨다.

내가 그 메시지를 계시했으니 내가 그것을 보존할 것이니라(15:9)

이슬람의 본질과 이미지를 왜곡시키려는 것으로부터도 보호할 것이라고 하셨다.

어떤 허위도 뒤에서나 앞에서 그것에 접근할 수 없나니 그것은 지혜로 충만하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실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이기 때문이라(41:42)

최후에는 하나님의 종교와 법이 승리한다고 하셨다.

실로 하나님과 사도(무함마드)를 거역하는 자들은 그들 이전의 선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며 나는 이미 명백한 증거를 내려주었느니라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굴욕적인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니라(58:5)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 가는 것을 막는 자들은 결국 정복될 것이라고 하셨다.

실로 불신자들은 그들의 재산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방해하노라 그들은 그런 짓을 지속할 것이나 그것이 그들에게 후회의 원인이 될 것이요 결국에는 그들이 정복될 것이라 그리고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집산될 것이니라(8:36)

하나님의 법 샤리아는 전 세계로 전파되어 나갈 것이요 그분의 명령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요 그분의 종교는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빛을 끄려하고 불신자들이 그것을 혐오하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빛을 완성시키시니라(61:18)

하나님께서서는 불신자들에 대한 승리를 약속하고 그 약속을 분명히 하셨다.

하나님께서서는 복음과 진리인 이슬람 종교를 사도(무함마드)를 통해 보내시고 그것(이슬람)을 모든 다른 종교위에 두셨느니라 이에 대한 증인은 하나님만으로써 충분하니라(48:28)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이 종교는 밤과 낮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전파될 것입니다. 진흙으로 지어진 초가집이나 낙타털로 세워진 텐트에까지 절대자의 힘과 이슬람이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힘과 이슬람의 명예를 통해서 혹은 불신자들의 굴복을 통해서 이슬람이 전파되어 나갈 것입니다.”(아흐마드, 이븐 힝반, 하킴)

이슬람은 날로 전파되어 가고 있다. 무슬림들이 이슬람 전파에 소홀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슬람 전파에 무슬림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듯 이슬람이 날로 퍼져나가는 이유가 있다. 이슬람은 인간의 본성과 조화를 이루며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건전한 정신에 건전한 육체를 만들어 주고 현세의 행복과 내세의 행복을 동시에 충족시켜 주는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슬람을 폄하하고 적대시하는 자들은 이슬람이 전파되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퇴보한 종교로 묘사하거나 테러의 종교로까지 매도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슬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고 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다. 속세에 집착한 그들의 목적

달성과 사람들을 현혹하고 이용하는데 이슬람이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형태로든 억압을 금지하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이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이슬람의 진리가 물질만능주의를 추구하는 그들의 목적에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들의 생각과 행위는 심각한 죄다. 왜냐하면 이러한 현혹에 빠지는 자들이 약자들이기 때문이다. 이슬람은 자신들의 현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약자나 타인을 이용하는 개인이나 단체나 사회를 단호하게 배척한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등하기 때문이다.

인간들이여 내가 너희를 창조하사 남자와 여자를 두고 종족과 부족을 두되 서로가 서로를 알도록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을 자는 가장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관찰하시는 분이시니라(49:13)

필자는 본서를 저술함에 있어 꾸란을 많이 인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는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대한 진리를 알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면서 저들을 증거로 삼지 아니했으며 저들을 창조할 때도 그랬나니 나는 유혹하는 저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느니라(18:51)

꾸란 다음으로는 정통 순나(sunnah)⁴⁾를 인용할 것이며 순나에 근

거한 현대과학과 이론을 추가할 것이나 꾸란에 언급된 내용과 중복된 것은 피할 것이다. 꾸란과 순나에 근거하지 않는 이론일 경우 오늘은 진리로 간주될 수도 있지만 내일은 다른 이론으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과거 어느 시기에는 진리로 인정되었던 이론들이 현대과학의 발달에 의해 현재는 틀리거나 정확하지 않는 이론으로 입증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하여 언제나 진리만을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인간에게 알려진 것은 조금밖에 되지 않느니라(17:85)

Abdurrahman b. Abdul-Kareem ash-Sheha

Email: alsheha2@gmail.com

4) 예언자 무함마드께서 걸어온 길을 순나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예언자의 말씀, 행위, 인정, 목인, 시인, 품성에 관한 내용이 수집되어 편찬된 총서를 의미하는데 하디스(hadith)라고도 한다(역자 주)

1.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성부와 성자를 두지 않은 일위일체의 유일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이슬람법, 즉 샤리아(shariah)의 기본바탕이다. 이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면 예언자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믿음(iman)의 영역을 믿게 된다. 다음은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자에게 질문했던 또 다른 믿음의 영역이다. 천사가 예언자에게 물었다.

“이만(iman: 믿음, 신앙)에 관하여 말해보시오.”

이 질문에 예언자께서 대답하시길,

“하나님(Allah)을 믿고, 천사들(malaikah)과 성서들(kutub)과 사도들(anbihya and rusul)과 종말(yaum al-akhir)과 좋고 나쁜 운명(qadar khairihi wa sharrihi)을 믿는 것입니다.”(무슬림)

2. 하나님(Allah)은 어떤 분이신가

다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서는 태초에도 존재하셨고 마지막에도 존재하시며 존재하고 계시나 나타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57:3)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외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느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도 알고 계시며 가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분이시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외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느니라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성스러운 분이시며 평화이시며 안전을 보장하는 분이시며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며 절대적인 분이시며 불가항력을 가진 분이시며 가장 위엄이 있는 분이시며 그들이 비유하는 것 위에 높이 계신 거룩하신 분이시라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창조하시는 분이요 형상을 만드시는 조물주이시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훌륭한 이름들을 갖고 계시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가장 강하시고 가장 현명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느니라(59:22-24)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나니 그분은 살아 계시고 영원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라 졸음도 잠도 그분을 엄습하지 못하노라 천지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니 그분의 허락 없이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중재할 수 있겠느냐 그분은 그들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 외에는 하나님의 지식에 관하여 아무 것도 모르니라 권자가 천지에 펼쳐져 있어 그것을 보호하는데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이 계시며 가장 거룩하시니라(2:255)

이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이시며, 그분의 속성과 그에 대한 명칭은 무엇이고, 그분에게 어떻게 간구하고 어떻게 접근하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있다. 하나님의 속성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우주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그분의 존재를 입증하고 있다.

일러 가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보라 그러나 징표들도 그리고 경고도 믿지 아니한 백성에게는 소용이 없느니라(10:101)

2.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를 두지 않으신 일위일체의 유일신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내도 두지 않으셨고 자식도 두지 아니하셨다. 그분의 모든 피조물은 그분을 필요로 하나 그분께서는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에게는 어떤 동반자나 경쟁의 대상도 없다. 그분께서는 태어나지도 아니하셨고 자식을 두지도

않으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성부와 성자를 두지 아니하셨다.

일러 가로되 하나님께서는 일위일체의 존재이시고 영원히 홀로 존재하시고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며 성자와 성부도 두지 않으셨나니 하나님께 비유될 수 있는 것 아무 것도 없느니라(112:1-4)

3.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대가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나 꾸란을 낭송하는 것이나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입회하시니라 그러므로 천지의 티끌 하나도 주님으로부터 피 할 수 없으며 작은 것도 큰 것도 모두가 성서에 기록되어 있느니라(10:61)

4.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존재하시는 분으로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나니 하나님만을 섬기며 기도하라 온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이며 홀로 찬양 받으소서(40:65)

5.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정의로운 분이시다. 폭군도 아니시다. 그러므로 어느 피조물을 억압하시거나 불공평하게 하지 않는 분이시다.

나는 심판의 날 공정한 저울을 준비하나니 어느 누구도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함이라 비록 겨자씨만한 무게일지라도 나는 그것

을 드러내 계산하리니 계산은 나만으로 충분하니라(21:47)

6.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분이시다. 그분에게 비유되거나 견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분은 모든 일과 모든 면에서 완벽한 분이시다. 그분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되고 원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숭배 받을 권리와 자격이 없고 그분만이 가장 아름다운 속성들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떠한 것도 숭배 받을 권리가 없으며 그분만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들을 가지고 계시니라(20:8)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너희를 위해 자웅을 두고 가족에도 암수의 짝을 두셨노라 이렇게 하여 너희를 번식시키시니라 하나님께 비유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42:11)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완벽함과 장엄함을 나타내는 여러 명칭과 속성들을 갖고 계신다.

힘들 때나 슬플 때 하나님의 명칭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련이나 슬픔을 거두어 주신 후 기쁨으로 채워주신다고 예언자께서 말씀하셨다.⁵⁾

5) sahih bin Hibban vol. 3, p.153(no. of al-hadith 972)

*발음:

알라훔마 인니 압두카 이브누 압디카 이브누 아마티카, 나아쉬야
티 비야다이카, 마아딘 피야 후크무카 아들룬 피야 까되아이카, 아쓰
알루카 비쿨린 이쓰민 후와 라카, 싹마이타 비히 싸카, 아우 안잘타
후 피 키타아비카, 아우 알랄타후 아하단 민 칼끼카, 아우 이나쓰타으
싸르타 비히 피 일밀 가이비 에인다가, 안 타즈알 알-꾸란나 라비아
갈비, 누우라 바쇄리, 와 잘라아 후즈니 와 다하아바 훔미

*의 미:

하나님이여, 저는 당신의 종이요 당신의 종의 자식이며 당신의 여
종의 자식입니다. 저의 앞머리는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당신께서
저를 완전히 지배하고 계십니다) 당신께서 저를 영원히 다스릴 것이
요 당신께서 저에게 내리신 운명은 공정합니다. 당신께서 지으시고
당신에게만 해당하는 이름들로 당신에게 간구합니다. 당신은 그 이름
들을 당신의 책에 언급하셨고 당신의 피조물에게 가르치셨으며 당신
만이 알고 있는 불가시계에 보존하고 계십니다. 당신께서는 꾸란을
제 마음에 생명이 되게 하고 제 가슴의 등불이 되게 하고 저의 슬픔과
불안을 제거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피조물과 전혀 다른 이름들과 속성들을 갖고 계신
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 존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존재하신
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 듣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들으신다. 하나
님께서서는 피조물이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지켜보신다.

하나님께서서는 현세에서 그들에게(피조물) 일어나고 있는 것과 내세에서 일어날 일들을 알고 계시나 그들은(피조물) 하나님의 지식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무 것도 없노라(20:110)

인간은 하나님의 장엄함을 이해하지 못한다.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켜보시니라(6:103)

인간은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나 알고 싶어 하는 본능을 갖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해 보면 그분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 예언자의 교우 몇 명이 아부 후라이라를 찾아와 말을 꺼냈다. “우리는 종종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무서운 것들을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아부 후라이라가, “이것을 발견했나요?” 라고 묻자, 확실히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것은 바로 진실한 믿음의 분명한 징조입니다.”⁶⁾

이러한 생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제정한 종교에서 탈선하게 하려는 사탄의 유혹에서 나온다. 꾸란에 언급된 것처럼 사탄은 맹세를 하고 있다.

6) sahih muslim vol.1m p.119(no. of al-hadith 132)

이블리스가 말하길 당신께서 나에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베푸는 자가 바로 그 인간입니까 당신께서 나를 심판의 날까지 유예하여 준다면 나는 그의 자손들을 소수만 제외하고 모두 멸망하게 만들 것이요(17:62)

이러한 속삭임과 교묘한 술책은 모두가 사탄의 짓이라고 예언자께서 말씀하시면서 사탄의 위엄성을 경각시키셨다.

다음은 이븐 압바스가 전하고 있는 이야기다. 어떤 사람이 예언자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사도님, 저는 제가 이따금 하늘로부터 내뿜개쳐지는 어떤 것을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도께서 말씀하시길, “알라후 아크바르(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십니다), 알라후 아크바르, 이것은 사탄의 속삭임으로 사악한 음모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Ahmad)⁷⁾

인간의 지혜로서 대답하기 어려운 난해한 질문으로 정신적 혼란을 조성하려 할 때 그것은 사탄의 속삭임이요 음모이므로 이때는 예언자의 말씀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창조하셨지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무슬림)⁸⁾

7) musnad al-Imam Ahmad vol.1, p.235(no. of al-hadith 2097)

8) sahih muslim vol.1, p.119(no. of al-hadith 134)

이러한 질문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예언자께서 제시하셨다.

“사탄이 당신에게, 이것은 누가 창조했고 저것은 누가 창조했지요?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대답하면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
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질문을 받을 경우에는, 아우주
빌라(하나님이여, 사탄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소서)라도 대답하시오.”
(부카리)⁹⁾

하나님께서 언제나 진리만을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유혹하여 그대의 마음을 괴롭힐 때면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들으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니라
(7:200)

9) sahih al-bukhari vol.3, p1194(no. of al-hadith 3102)

3.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존재를 입증하고 있다. 건전한 정신과 건전한 이성과 순수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이 사실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비록 하나님의 존재를 거역하는 불신자 자신들도 그 사실을 부정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들도 불가시계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스스로의 모순에 빠져있다. 느낌, 증상, 영향, 결과 등으로 우주에 있는 불가시계의 것들을 믿고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들은 중력을 믿고 있다. 중력 자체는 보지 못하지만 지구의 중력에 의해 물건이 땅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통해서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보지 못하지만 금속성 물체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결과를 통해서 자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 자신들의 지능을 볼 수 없지만 자신들에게 지능과 지혜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 공기와 산소를 보지 못하지만 결과를 통해서 그것의 존재를 믿고 있다.

자신들의 오감을 통해서, 비록 그 오감이 부정확한 느낌을 줄 수 있어도 잘 알려진 것들은 믿는다. 예를 들어 물에 넣은 막대기 하나가 물속에서는 굽은 것처럼 보이고, 평행선으로 물에 세워진 두 막대기가 멀리서 교차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처럼 믿기도 한다. 우리가 북극이나 남극 혹은 적도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의 머리는 항상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능이 없이는 지식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들에 관련한 지식이 한정된 자들은 헤맬 수밖에 없다. 오감으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들은 존재하고 있는 그것 자체를 보지 못하면서도 결과와 징조를 통해서 자신들 주변의 모든 것을 믿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눈으로 확인하려는 것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멀리하게 하고 있다.

파라오가 말하길 하만이어 내게 높은 궁전을 세우도록 하라 그리하여 내가 하늘 닿는 길에 이를 수 있도록 하라 하늘에 이르는 길과 방법을 알아내 내가 모세의 하나님께 이르리라 나는 모세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노라 이리하여 파라오의 눈에는 자신의 사악한 행위가 훌륭한 것으로 보여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또한 파라오의 음모는 자신을 파멸의 길로 유인했을 뿐이라(40:36-37)

이것은 어떤 특정 시간이나 시대에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들의 무지 때문에 진리를 거역하고 자신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알지 못한 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말하노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 하시며 왜 우리에게는 증표를 보여주시지 않는가라고 마치 이전의 우매한 자들이 그랬듯이 말하니 그들의 마음이 닳았노라 실로 나는 신념을 가진 백성을 위해서만 분명한 증표들을 보

여주었느니라(2:118)

그뿐만 아니라 부활과 내세의 삶을 부정하는 자들은 거만을 피우기도 한다.

나와의 만남을 바라지 않는 불신자들이 말하길 왜 우리에게 천사들이 오지 않는가 왜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보지 못하는가 라고 말하니 실로 저들은 스스로 교만하고 불손 하노라 저들이 천사들을 보는 그날 모든 죄인들에게는 아무런 기쁜 소식도 없으며 또 천사들이 말하길 이것은 너희에게 금지된 것이라 하노라(25:21-22)

그들 또한 유대인들처럼 부당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너희는 이렇게 말했느니라 모세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까지 당신을 믿지 않을 것이요 그때 천둥과 번개가 그들을 불태워버렸느니라 너희는 이것을 지켜보지 아니 했더뇨(2:55)

건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한다.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그것을 존재케 한 실체가 없이는 아무 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다. 존재하고 있는 모든 실체의 움직임도 움직이게 하는 원인, 즉 움직이게 하는 어떤 실체가 있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것을 깨닫는다. 예를 들어 어떤 방에 들어가

보니 책상이 놓여 있다. 책상이 놓여 있는 것은 책상 스스로 그 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책상을 갖다 놓았기 때문이다. 사막에 사는 유목민들은 전혀 오염되지 않은 그들의 순수한 본성에 의해 어떤 사물의 주체를 알아낸다. 예를 들어, 낙타의 똥을 보고 낙타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당나귀의 똥을 보고 그 자리에 당나귀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내며, 발자국을 보고 어떤 사람이 그곳을 걸어갔다는 것을 이해한다. 어두운 밤과 밝은 낮을 보고, 헤아릴 수 없는 별들로 장식된 밤하늘을 보고, 거대한 파도가 치는 바다를 보고, 태양과 지구와 유성들을 보고 그것들을 존재케 하는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 실체가 바로 절대자이며, 그 절대자가 바로 창조주이며, 그 창조주가 바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꾸란이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한다.

꾸란은 인간으로 하여금 우주의 존재를 생각하고 사색하도록 하여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도록 하고 있다.

일러 가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보라 그러나 징표들도 그 리고 경고도 믿지 아니한 백성에게는 소용이 없느니라(10:101)

완벽하게 창조된 우주와 그 안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정확하게 자신들의 궤도를 운행하고 있는 별들과 유성들의 질서를 관찰함으로써 그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만일 이것들이 조금이라도 궤도를 벗어난다면 이 우주의 질서는 파괴 될 것이고 그로인한 재앙은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주의 질서는 창조가 시작된 이래 제도권 안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유지되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너희가 보듯이 기동도 없이 하늘을 세우셨고 땅 위에 고정된 산을 두어 너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아니 하도록 하였으며 그 안에 모든 동물이 번성하도록 하셨느니라 또한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게 하여 그 안에 온갖 종류의 귀한 식물들이 자용으로 자라게 하 셴느니라(31:10)

그러므로 너희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저녁 시간과 낮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소생케 하시고 산 자를 임종케 하시며 죽은 땅 을 생동케 하시니 그와 같이 너희도 다시 살아나니라 하나님의 증표 가운데 하나는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로부터 너희를 이 땅에 퍼 트린 것이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증표 중에 하나는 너희 자신에게서 배필을 지으신 후 그 배필과 함께 평안하게 살게 하고 서로 간에 사랑 과 자비를 두셨느니라 실로 그 안에는 생각하는 백성을 위한 증표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증표 가운데 하나는 하늘과 땅의 창조와 서로 다른 언어와 서로 다른 피부색깔을 두신 것이라 실로 그 안에는 지식이 있는 자들을 위한 증표가 있노라 또 다른 증표 가운데 하나는 너희로 하여 밤에는 잠을 자게하고 낮에는 하나님의 베푸심을 추구하 게 하는 것이라 실로 그 안에는 듣는 백성을 위한 증표가 있노라 또

다른 증표 가운데 하나는 공포와 희망을 갖도록 너희에게 번갯불을 보이시고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게 하여 불모지의 땅을 생동케 하신 것이라 실로 그 안에는 지혜가 있는 백성을 위한 증표가 있노라 또 다른 증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늘과 땅이 견고하게 서 있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너희를 부르실 때 너희가 불려나오는 것이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노라 창조를 하시고 죽은 후 그것을 재창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것은 하나님께 가장 쉬운 일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며 가장 강하시고 가장 현명하신 분이시니라(30:17-27)

실로 주님께서서는 옛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 권좌에 오르신 하나님이시며 밤을 두어 낮을 가리고 또 서둘러 밤을 쫓으며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후 그것들의 운행을 자신의 권능아래 두신 분이시니라 진실로 창조와 말씀이 주님의 것이니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이여 홀로 영광 받으소서(7:54)

꾸란은 절대자가 존재한다는 또 다른 증거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신기한 존재 인간의 창조를 제시하고 있다.

대지 위에도 믿음이 확고한 자들을 위한 증표들이 있고 너희 마음 속에도 그 증표들이 있거늘 그래도 너희는 알지 못하느뇨(51:20-21)

동물들이 인간에게 여러모로 유익하도록 창조된 것도 하나님의 존

재를 입증하는 것이다.

가축에도 너희를 위한 교훈이 있나니 몸 안에 있는 물질과 피와 침전물 사이에서 마시기에 순수한 우유가 만들어지노라 과일 중에는 종려나무와 포도나무가 있어 그로부터 마실 것과 일용할 양식을 얻나니 실로 그 안에는 지혜가 있는 백성을 위한 증표가 있노라 주님께서 별에게 은혜를 부여하사 산과 나무와 사람이 사는 거주지에 집을 지으라 하시고 모든 과일과 꽃에서 양식을 취하여 주님의 길을 따르라 이는 쉬우니라 하셨느니라 그들의 몸에서는 여러 가지 색깔의 마실 것이 나오며 인간에게 유용한 치료약이 있느니라 실로 그 안에는 숙고하는 백성을 위한 증표가 있느니라(16:66-69)

식물과 초목들이 인간에게 여러모로 유익하도록 창조된 것도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 중에 하나다.

하나님께서 땅을 펼치시고 그 안에 산을 세우셨으며 강물을 흐르게 하여 모든 종류의 열매를 두셨노라 그 안에 자웅을 두셨고 밤이 낮을 가리도록 하셨으니 실로 그 안에는 생각하는 백성을 위한 증거들이 있노라 대지에는 서로 인접한 다양한 지역과 포도밭과 전답과 풍성한 종려나무와 그렇지 않는 것이 있노라 그리고 나는 그것들이 한 가지 물로 자라게 하고 그 중의 일부는 다른 것 보다 먹기에 더 좋도록 하였으니 실로 그 안에는 백성이 알아야 할 증표가 있느니라(13:3-4)

여러 피조물들이 육지와 바다와 하늘에서 인간의 다양한 목적과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창조된 것도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 중에 하나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는 물로 지으셨나니 그것들 중에는 배로 기는 동물이 있고 두 발로 걷는 동물이 있고 네 발로 걷는 동물이 있노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창조하시니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실 권능을 가지시노라(24:45)

우주의 균형과 질서와 운영을 보면 절대자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보듯이 기둥도 없이 하늘을 세우셨고 땅 위에 고정된 산을 두어 너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아니 하도록 하였으며 그 안에 모든 동물이 번성하도록 하셨느니라 또한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게 하여 그 안에 온갖 종류의 귀한 식물들이 자용으로 자라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이거늘 하나님 외에 누가 무엇을 창조했는지 내게 보여주도록 하라 죄인들은 분명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노라(31:10-11)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쌍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절대자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근거다. 하늘과 땅, 삶과 죽음, 행복과 불행, 태양과 달, 낮과 밤,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는 않는 것, 뜨거운 것과 찬 것, 선과 악, 믿음과 불신 등 모든 것이 쌍으로 되어 있다. 동물과 식물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나는 모든 것을 자웅과 쌍으로 창조하니라 이로 하여 너희가 나의 은총을 기억하도록 함이니라(51:49)

이들 생명체들이 주는 다양성에 대한 생각을 통해서도 절대자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게 하사 그것으로 여러 가지 색깔의 다양한 과일을 맺게 하심을 너희는 보지 않느냐 산들에는 여러 가지 색깔의 하얀 층 붉은 지역 그리고 검은 색깔의 광택도 두셨노라 사람과 동물과 가축도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색깔을 두셨노라 지식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라 실로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시고 가장 너그러운 분이시니라(35:27-28)

보이는 것도 자웅과 쌍이 있듯이 보이지 않는 것도 자웅과 쌍이 있다. 이를 통해서도 절대자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

하나님이여 홀로 영광 받으소서 당신께서는 대지가 생산하는 모든 것을 자웅과 쌍으로 두셨으며 인간도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도 자웅과 쌍으로 두셨습니다(36:36)

이 우주를 움직이고 보호하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힘은 분명히 다음 셋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 우주가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을까? 이것은 어이없는 그릇된 생

각이다. 왜냐하면 존재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존재케 한 실체가 반듯이 있기 때문이다.

이 우주는 어떤 물체의 진화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을까? 이 논리 역시 합리적이지 않다. 거전한 지식층은 이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 우주는 절대자의 창조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을까? 존재케 하는 실체가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우주 역시 그것을 존재케 한 실체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슬림들의 믿음인 것이다. 무신론자들은 이에 대하여 의심을 갖는다.

그들은 무에서 스스로 창조되었느뇨 아니면 그들 스스로가 조물주이뇨 아니면 그들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였다고 하느뇨 그렇지 않노라 그들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없노라(52:35-36)

건전한 이성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인간이 존재하고 우주가 존재하는 것은 그것을 존재케 한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이 본능을 가리켜 과학자들은 종교적 본능이라고 말한다.

올바른 종교를 위해 그대의 얼굴을 확고히 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위일체 본성에 근거하여 인간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창조에는 변함이 없나니 그것이 진리의 종교라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를 뿐이라(30:30)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모든 인간은 본성(fitrah)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부모가 유대교인이나 기독교인으로 만들지요. 그것은 마치 손이나 발이 절단된 소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손이나 발을 절단하기 전에 손이나 발이 절단된 상태로 태어나는 것을 보았습니까?”

이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하길,

“사도님, 어릴 때 죽는 자들을 보십니까?”

이 물음에 예언자께서 말씀하길,

“그들이 행하였을 지도 모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부카리)

타고난 자신의 종교적 본성이 왜곡된다 해도 자신의 일이 잘 되게 하여 달라는 마음의 기도를 한다. 어려움에 처할 때도 도움을 달라고 기도한다. 하물며 답을 줄 수 없는 우상들에게까지 기도를 한다. 태양과 달과 별에게까지 간청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타고난 본능 때문이다. 오만과 거만 때문에 이것마저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타고난 종교적 본능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분명히 나타난다. 중병에 걸리거나 극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절대자에게 도움을 간청한다.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빌기도 한다. 곤경에 처한 자신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출해 줄 절대적 힘을 가진 존재가 있다는 잠재의식 때문이다.

재앙에 직면했을 때면 인간은 기대어서 또는 앉아서 또는 서서 나에게 간구하노라 그러나 내가 그를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주면 그는 나에게 구원 요청을 하지 아니 했던 것처럼 들어서니라 이렇듯

불신자들은 그럴듯하게 행동할 뿐이라(10:12)

꾸란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혼을 가진 모든 인간에게 창조에 대한 도전을 제의한다. 개별적인 도전과 집단적인 도전까지 제의하고 있다.

사람들이여 비유로서 말하노니 귀를 기울이라 실로 너희가 하나님을 제쳐놓고 섬기는 것들은 그것들이 온 힘을 다 모은다 해도 결코 파리 한 마리도 창조하지 못하며 파리 한 마리가 그들에게서 무엇인가를 가져간다 해도 우상들은 파리로부터 그것을 다시 가져오지 못하니라 이렇듯 우상숭배자와 우상은 모두 미약할 뿐이라(22:73)

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이다. 혼에 관한 것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그것의 실체를 아는 자가 없다.

피조물은 혼이 들어간 어떠한 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

불신자들이 영혼에 관하여 그대에게 물으리라 일러 가로되 영혼은 주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영역으로 너희에게 알려진 것은 조금밖에 되지 않느니라(17:85)

다음은 이와 관련한 신성 하디스(hadith qudsi)의 내용이다.

“내가 창조하는 것처럼 어떤 것을 창조하려는 자처럼 어리석고 부

정한 자는 없느니라. 하물며 개미 한 마리, 종자 씨 하나, 보리 섬유질 하나도 창조하지 못하니라.”(부카리)¹⁰⁾

이렇듯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이 절대자의 존재를 인식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권능을 주시자 주님께 관하여 그와 논쟁을 하려 하매 아브라함 가로되 나의 주님은 생명을 부여하고 또 생명을 앗아가는 분이시라 하니 이에 그가 대답하길 내가 생명을 부여하고 내가 생명을 빼앗아 가노라 이에 아브라함 가로되 하나님은 동에서 태양을 뜨게 하시니 당신은 서쪽에서 태양이 뜨도록 하라 하니 믿음을 거역한 불신자는 당황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죄지은 자들을 인도하지 아니 하시니라(꾸란 2:258 절의 의미)

모든 인간에게 도전이 제의되지만 인간은 그 도전에 응할 수가 없다. 이것도 절대자의 존재를 인식하게 한다. 절대자에 대한 인간의 도전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일러 가로되 인간과 진이 함께 매달려 꾸란과 같은 것을 만들려 해도 그들은 그와 같은 것을 만들 수 없노라 비록 서로가 협력한다 해도 그리하니라(17:88)

10) sahih al-Bukhari vol. 6, p. 2747(no. of hadith 7120)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나 무함마드의 예언자 신분에 대한 의심이 있는 사람을 위해 꾸란과 유사한 것을 창출해보라고 한다. 당시 웅변에 능숙했던 아랍인들은 꾸란과 유사한 것을 창출하려고 시도했다. 그렇지만 비록 꾸란이 자신들의 언어인 아랍어로 계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대가 그것을 위조하였다고 그들이 말하니라 일러 가로되 그와 같은 열 개의 장을 제시하라 그리고 너희가 진실이라면 하나님 외에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두에게 간구원하여 보라(11:13)

만약 너희가 하나님의 종에게 계시한 것에 관하여 의심한다면 그와 같은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보이고 또 너희가 진실이라면 하나님 외에 증인들을 대어보라 하셨느니라(2:23)

꾸란은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이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입증하고 있다.

이 꾸란은 하나님 이외의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올수 없는 것으로 이전에 계시된 것을 확증하고 그 성서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 계시되었나니 이는 만유의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니라(10:37)

만일 꾸란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 안에는 많은 모순이 있을 것이다.

왜 그들은 꾸란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느냐 만일 그것이 하나님
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왔다면 그들은 그 안에서 많은 모순들을 발
견했으리라(4:82)

이제 창조의 시작과 끝에 관한 토론이 전개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
니라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열쇠는 하나님에게 있느니라(39:62-63)

하나님께서서는 일곱 개의 하늘을 층으로 하여 조화롭게 두셨느니라
너희는 그것이 완전무결하여 무엇 하나 결함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
니라 다시 한 번 눈을 돌려보라 결함을 볼 수 있느냐 보고 또 들여다
보라 피곤하여 있던 눈이 겸손하게 순종한 시력으로 돌아올 것이니라
(67:3-4)

4. 가시계의 첫 창조

인간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눈에 보이는 가시계의 것조차도 모두 알 수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계의 세계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알려주시거나 암시하여 준 것 외에는 알 수가 없다. 그럼으로 창조주께서 알려주신 것만이라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불가시계에 있는 것 중에 천국(jannah)을 알려주시고 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그곳에 이를 수 있다는 길도 안내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내 인간으로 하여금 불가시계의 세계를 알게 하고 유익하도록 하셨다. 그런데 만일 인간의 이성으로 주변 가시계와 그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없다면 불가시계는 더욱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일곱 개의 하늘을 층으로 하여 조화롭게 두셨느니라 너희는 그것이 완전무결하여 무엇 하나 결함이 없음을 알 것이니라 다시 한 번 눈을 돌려보라 결함을 볼 수 있느뇨 보고 또 들여다보라 피곤하여 있던 눈이 겸손하게 순종한 시력으로 돌아올 것이니라(67:3-4)

5. 천지창조

하늘과 땅을 진리로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있어라 하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있게 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승리의 나팔이 부는 날 왕국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분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모두를 알고 계시며 가장 현명하시고 모든 것을 숙지하고 계시느니라(6:73)

다음은 하늘과 땅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부 피조물들에 대한 증거다.

나는 하늘에 잘 보호된 지붕을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그것의 증표에 등을 돌리고 있노라 하나님께서 밤과 낮 태양과 달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그 안에서 궤도에 따라 운행하도록 하셨느니라(21:32-33)

창조가 어렵겠느냐 아니면 위대한 하늘을 세우는 일이 더 어렵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가장 높이 두시고 거기에 질서와 온전함을 두셨노라 밤을 어둠으로 그리고 낮을 빛으로 두시고 대지를 펼쳐 놓으시어 그곳으로부터 물과 초목을 얻게 하시었노라 산들을 두시되 온전하게 고정시키셨으니 이는 너희와 가축들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

해서라(79:27-33)

내가 잉태의 비바람을 보내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게 하여 그것을 마시게 하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저장하지 않느니라(15:22)

바람에도 여러 형태의 바람이 있다. 그 중에 일부 바람은 자비의 바람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서 바람을 보내니 이는 비를 보내는 징조라 그것이 무거운 구름을 동반하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불모지로 유도하여 그곳에 비를 내리게 하사 그것으로 모든 종류의 과실을 생산케 하시니라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시나니 너희는 상기할 것이니라(7:57)

한편 징벌의 바람도 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를 바다로 내보내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폭풍우를 보내지 아니하시며 너희가 불신한 것이 있다하여도 너희를 역사시키지 않으실 것이라고 안심하느뇨 너희는 나에게 대항할 어떤 후원자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니라(17:69)

강한 폭풍우에 휩싸여 유황불의 밥이 되기를 바라는 자가 있겠느냐(2:266)

하나님께서는 궂은 날 저들에게 추운 폭풍을 보내 저들로 하여금
현세의 징벌을 맛보게 하였노라(41:16)

하나님께서는 칠천을 두셨고 땅도 그와 유사한 층으로 두셨다.

하나님께서는 일곱 층으로 된 하늘을 두시고 땅도 그와 같이 창조
하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내려오느니
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힘을 미치시며 모든 것
을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려 함이니라(65:12)

창조 이전에는 하늘과 땅이 하나였다.

불신자들은 하늘과 땅이 하나였음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분리하고 물을 모든 생명체의 근본으로 두셨으나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느니라(21:30)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은 창조된 것이다.

일러 가로되 이틀 동안에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부정하
며 하나님을 제쳐두고 다른 것을 숭배한단 말이뇨 하나님께서는 온
누리의 주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부동의 산들을 두시고 땅
에 많은 축복을 두시어 간구하는 자들에게 나흘 동안 고르게 양식을
주시었노라 그런 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수증기로 가득한 하늘을 향
해 오르시며 하늘과 땅에 말씀하시길 좋은 싫든 간에 너희는 함께 오

라 그러자 하늘과 땅이 대답하기를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동안에 일곱 개의 하늘을 완성하신 후 각 하늘에 임무를 부여하셨노라 그리고 지상에서 가까운 하늘을 빛으로 장식하고 그리고 보호되도록 하였노라 이것은 가장 강하시고 가장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라(41:9-12)

6. 천사들 창조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빛으로 창조한 실체들이라고 예언자 무함마드는 언급하고 있다.

“천사들은 빛에서 창조되었고, 진(jinn)들은 연기가 없는 불꽃으로 창조되었으며, 아담은 꾸란에 언급된 것처럼 마른 찰흙으로 창조되었습니다.(무슬림)¹¹⁾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그들 각자에게 임무를 부여하셨다.

천사들이 말하길 우리 중에 임무가 없는 자는 아무도 없노라 우리는 줄을 지어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들이라(37:164-166)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를 비롯하여 미카엘 천사, 라파엘 천사 등 일부 천사들의 이름을 알려 주셨다.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과 사도들과 가브리엘과 미카엘에게의 적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적이거늘 실로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의 적이 되시니라(2:98)

11) sahih muslim vol.4, p.2294(no. of hadith 2996)

가브리엘 천사는 각 시대 각 민족의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였다.

믿음의 가브리엘 천사가 계시를 갖고 내려와 예언자에게 말하길 그대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으로 경고하도록 하였느니라(26:194)

미카엘 천사에게는 비와 식물을 관장하는 임무를 주셨고 라파엘 천사에게는 나팔을 부는 임무가 주어졌다. 그가 첫 번 나팔을 불면 모두가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

나팔이 울려 퍼지는 날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공포에 휩싸이게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은 제외되나니 그들은 모두가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오느니라(27:87)

라파엘 천사는 보상의 날 두 번 더 나팔을 불 것이다. 두 번째 나팔을 불면 모든 것이 죽게 되고 세 번째 나팔을 불면 모든 것이 부활하면서 생명을 갖게 된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니 그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위에 있는 모든 것이 의식을 잃고 시들어지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은 제외 되니라 그 후 또 다른 나팔이 울려 퍼지니 보라 그때 저들은 서서 지켜보느니라(39:68)

죽음을 관장하고 조력하는 천사들도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모든 종들 위에 가장 높이 계시면서 너희를 감시하는 천사들을 보내시니 죽음이 너희 중 누구에게 임했을 때 천사들이 그의 영혼을 거두어 가느니라 그리고 천사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아니 하니라 모든 것이 그들의 보호자이시며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산에 가장 능통하고 가장 빠르시니라(6:61-62)

하나님의 권자를 운반하면서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천사들이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 됨 이상으로 자만하지 아니했으니 가까이 있는 천사들도 그러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경배하기를 꺼려하는 자와 교만해 하는 자 모두를 당신에게로 모이게 할 것이니라(4:172)

어떤 천사들에게는 천국을 관장하는 임무가 주어졌고 어떤 천사들에게는 지옥을 관리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믿는 자들이여 인간과 돌들이 연료가 되어 타고 있는 지옥불로부터 너희 자신과 너희 가족을 구하라 임무를 맡은 천사가 그 위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거역하지 아니하고 엄하게 집행하느니라(66:6)

인간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천사들도 있다.

각 인간에게는 그의 앞과 뒤에 천사들이 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를 지키고 있느니라(13:11)

인간의 모든 행위를 기록하는 임무를 받은 천사들도 있다.

너희를 감시하는 자들이 임명되었노라 이들은 명예로운 기록자들이며 이들은 너희가 하는 일을 모두 알고 있노라(82:10-12)

천사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 가까이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경멸하지 않고 싫증을 내지도 않노라 천사들은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기력이 쇠하지 않느니라(21:19-20)

천사의 숫자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알 수 없다.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수호자 천사들을 알 수 없느니라(74:31)

천사들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임무를 깊이 알고 싶은 독자는 꾸란과 순나에 근거하여 저술된 책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7. 진(jinn) 창조

진(jinn)들은 하나님을 숭배하기 위해 창조된 불가시계의 실체들이다.

내가 진과 인간을 창조함은 그들이 나만을 섬기게 하려 함이 아니라 나는 그들에게 자신들을 위한 양식과 나의 피조물을 위한 양식을 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들이 자신들과 나의 피조물들을 부양해주기를 바라지도 않느니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권능과 힘의 주님으로써 양식을 주시는 수여자이시니라(51:56-8)

인간에게 주어진 종교의 임무가 진들에게도 적용된다.

내가 진의 무리를 그대에게 보내어 꾸란을 듣도록 하였을 때 그들이 거기에 나타나 말하길 조용히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꾸란의 낭송이 끝났을 때 그들은 백성들에게로 돌아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경고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하길 백성들이여 우리는 모세 이후에 계시된 이 성서가 그 이전의 것을 충족시키고 진리와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노라(46:29-30)

진들은 불로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도자기를 만들듯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으며 진은 화염으로부터 만드셨느니라(55:14-15)

실로 나는 검고 마른 흙으로 인간을 빚었노라 그리고 나는 전에 뜨거운 바람의 불길로부터 진을 창조하였노라(15:26-27)

8. 아담 창조

아담은 인류의 아버지요 조상이다.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지상에 대리인을 두리라 하시니 천사들이 가로되 이 세상을 해치고 살상을 할 자들을 두시려고 하십니까 저희들은 당신을 성스러운 분으로 찬미하고 당신만을 경배하나이다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느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사물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후 천사들에게 제시하며 말씀하시길 만일 너희가 옳다면 너희가 이것들의 이름을 말해보라 하니 천사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며 홀로 영광 받으소서 저희는 당신이 가르쳐준 것 외에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 실로 당신께서는 전지하시며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그들에게 이름을 일러주라 말씀하시니 그가 그들에게 그 이름을 가르쳐주매 그분께서 천사들에게 이르시길 내가 천지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과 너희가 드러내거나 감추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 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아담에게 엎드려 절하라 하니 모두가 엎드려 절을 하나 이블리스만 거절하며 거만을 부렸으니 그는 불신자 중에 있었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아담아 너의 배우자와 함께 천국에 거주하라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양식을 먹되 이 나무에 접근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둘이 죄지은 자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 그런데 사탄이 그들을 유혹하여 그곳으로부터 나가게 하매 하나님이 말씀하사 서로가 서로의 적이 되어 지상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얼마 동안 안주하여 살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아담은 주님으로부터 그를 용서하는 말씀을 들었으니 진실로 그분께서는 너 그렇게 용서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사 모두 세상으로 내려가 살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보낼 것이니 이를 따르는 사람은 두려움도 슬픔도 없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의 증거들을 불신하고 거역하는 자는 불지옥의 주인이 되어 그 속에서 영원히 기거할 것이니라(2:30-39)

인간은 모두가 아담의 자손들로 형제자매들이다.

인간이여 한 몸에서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을 공경하라(4:1)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인간들이여, 우리의 주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의 조상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에서 비롯되었고 아담은 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랍인이 비아랍인에게 우월하지 않고 비아랍인이 아랍인보다 우월하지 않으며, 흑인이 백인보다 우월하지 않고 백인이 흑인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월한 자는 피부의 색깔이 아니라 정직함과 경건한 신앙심을 가진 자들입니다.”(아흐마드)¹²⁾

12) Ahmad, vol. 5, p. 411(no. of hadith 23536)

9. 아담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아담은 흙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고 있다. 어떻게 창조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해석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은 아담이 흙으로 창조되었다는 증거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랬듯이 예수에게도 다름 바가 없노라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 그것에 있어라 말씀하시니 그가 있었노라(3:59)

다음의 꾸란 절에 의하면 아담은 흙(turab)으로 창조되었다.

흙으로 인간을 빚으신 후 운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 또 다른 운명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아직도 부활을 의심하느냐(6:2)

다음 절에서는 끈적끈적한 찰흙(tin)으로 창조되었다고 하였다.

저들이 만든 것이 더 강한지 아니면 내가 창조한 것들이 더 강한지 저들에게 물어보라 나는 저들을 끈적끈적한 흙으로 창조하였노라 (37:11)

다음 절에 따르면 도자기 만드는 흙 같은 것(atwaar)으로 창조되

었다.

하나님께서는 도자기 만드는 흙 같은 것으로 인간을 빚으셨느니라
(55:14)

다음 절에서는 검고 부드러운 진흙으로 창조되었다고 하였다.

실로 나는 검은 흙으로 인간을 빚었노라(15:26)

흙의 종류에 대한 차이점이 보이지만 흙이라고 하는 한 가지 재료로 아담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아담이 창조된 이후부터 인간은 단계를 거쳐 탄생한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된 상태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혼을 불어넣으신다.

보라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검고 마른 흙으로 인간을 창조할 것이라 내가 형상을 만들어 그 안에 나의 영혼을 불어넣으리니 너희는 그에게 절을 해야 하느니라 그리하여 천사들 모두가 절을 하였노라 그런데 이블리스는 절하기를 거절하였노라(15:28-31)

그 후부터 인간은 정액과 같이 허약한 것으로부터 재창조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가장 조화롭게 두시고 아담을 흙에서 창조하기 시작하셨노라 그런 후 하나님께서는 보잘것 없는 미세한 한 방울의 정액으로부터 인간의 자손을 지으시노라 그것을 형상으로 만드사 그 안에 당신의 영혼을 불어 넣고 청각과 시각과 심장을 주시니라 그러나 너희는 감사하는 마음이 크지 못하노라 (32:7-9)

최초의 인간이 지구의 흙으로 창조되었으므로 다시 흙으로 돌아갔다가 부활의 날 소생된다.

그것으로부터 나는 너희를 만들었고 다시 그곳으로 너희를 돌려보내며 그곳으로부터 너희가 소생하게 할 것이니라(20:55)

10. 아담의 모습

다음은 아담의 속성에 관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심에 그의 키는 팔 길이로 60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길, ‘아담아 가서 천사들에게 인사한 후 그들이 너에게 무어라고 답례 인사를 하는지 들어라. 천사들이 너에게 하는 인사가 너와 너희 자손들이 사용할 인사말이니라.’ 그러자 아담이 그들에게 가서, ‘앗쌀라무 알라이쿰’이라고 인사하자 천사들이 대답하길, ‘앗쌀라무 알라이쿰’에 ‘라흐마툴라’를 더하여, ‘앗쌀라무 알라이쿰 와 라흐마툴마’로 대답하였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 아담처럼 그렇게 할 것이며 창조되는 인간의 키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부카리)¹³⁾

13) sahih al-bukhar, vol.3, p.1210(no. of hadith 3148)

11. 아담의 자손들은 왜 서로 다른가

예언자 말씀에 의하면 아담의 자손들은 피부와 성격 등 모든 것이 서로 다르게 태어난다.

“하나님께서서는 천사들을 통해 지구로부터 가져간 한 줌의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땅에서 가져간 흙의 성질과 색깔로 인하여 아담의 자손들은 성격과 모습이 다르게 태어날 것입니다. 피부색이 붉은 사람, 노란 사람, 흰 사람, 검은 사람 등 다양한 색깔에 다양한 성격의 인간들이 태어날 것입니다.”(이븐 힙반)¹⁴⁾

14) sahih bin hibban, vol. 14, p. 29(no. of hadith 6160)

12. 어머니의 시조 하와(Hawa: 이브) 창조

하나님께서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후 아담의 왼쪽 갈비뼈 하나로 아담의 아내가 될 한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하여 아담은 그 여자로 인하여 위안이 되었고 아담과 그 여자는 부부가 되어 자손들을 출산하게 되었다.

인간이여 주님을 공경하라 한 몸에서 너희를 창조하사 그로부터 배우자를 두고 그 둘로 하여금 남자와 여자를 많이 두도록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라 너희의 상호권리를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친인척간의 결속을 단절하지 말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지켜 보시고 계시느니라(4:1)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하나님과 내세를 믿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아내를 잘 대우하세요. 왜냐하면 여성은 갈비뼈 하나로 만들어졌습니다. 갈비뼈 상단 부분이 가장 많이 휘어져 있습니다. 휘어진 그 부분을 반듯하게 하려고 하다보면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휘어진 채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잘 대우하십시오.”(부카리)¹⁵⁾

13. 아담과 하와의 가정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지구로 오기 전 그들은 천국에 살았다.

그때 나는 천사들에게 말했노라 아담에게 절하라 그러자 모든 천사가 엎드렸으나 이블리스는 거절하였노라 나는 아담에게 말했노라 아담아 이블리스는 바로 너와 네 아내의 적이니라 그가 너희를 유혹하여 천국에서 쫓아내 너희를 불행하게 하려 하노라 그곳에서 너희가 굶주리지 아니하고 헐벗지 않으리라 그곳에는 갈증도 없으며 뜨거운 열사도 없노라 그런데 사탄이 속삭였노라 아담아 내가 너를 영생의 나무와 불멸의 왕국으로 안내하여 주리요 그렇게 하여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맛보매 그들의 벌거벗음이 드러났노라 그러자 그들은 천국의 나무 옆으로 그곳을 가리기 시작했고 아담은 그의 주님의 명령을 위반했으니 그는 방황하게 되었노라 그러나 주님은 아담을 선택하셨고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셨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여기서 땅으로 내려가라 너희 중에 일부는 서로 적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보낼 것이라 나의 복음을 따르는 자는 방황하지 아니하고 불행하지 않을 것이라 그러나 나의 경고로부터 등을 돌리는 자는 누구나 궁핍할 것이며 부활의 날 나는 그를 장님으로 만들어 부활하게 할 것이니라(20:116-124)

15) sahih al-bukhari, vol. 5, p. 1987(no. of hadith 4890)

14. 예언자와 사도 파견

아담의 자손들이 번성하면서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각 지역에 살고 있던 자손들이 진리를 벗어나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리로 안내하기 위해 예언자와 사도를 보내기 시작하였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이븐 압바스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아담과 노아 10대까지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제정한 종교를 지키고 있었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종교에서 이탈하는 민족들이 생겨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징벌을 경고하도록 하셨다.”(하킴)¹⁶⁾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자들이 너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하고 내가 멸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니라 모세야 네 오른손에 있는 그것이 무엇이뇨 그가 대답하길 그것은 제 지팡이입니다 제가 그것에 기대고 그것으로 나무 잎들을 때려서 양을 먹이며 그 안에서 다른 유용한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그것을 던져라 하시매 그가 그것을 던지니 한 마리의 뱀이 되어 재빨리 기어가노라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세야 그것을 쥐어라 그리

16) al-mustadrik ala sahihaini, vol. 2, p. 596(no. of hadith)

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것을 본래의 상태로 돌려놓으리라 그대의 손을 너의 겨드랑이에 넣어라 아무런 손상이 없이 하얗게 되어 나오리니 이는 또 다른 하나님의 증표이니라 이렇게 하여 내가 너에게 위대한 나의 증표를 보이려 함이라 파라오에게 가보라 그는 실로 모든 한계를 넘어선 오만한 자이니라 모세가 말하길 주여 저를 위해 저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소서(20:16-24)

하나님께서 보낸 최초의 사도는 노아였다.

내가 그대에게 계시한 것도 노아나 그 이후의 예언자들에게 계시한 것과 같으니라(4:163)

하나님께서 파견한 예언자들의 이름이 꾸란에 언급되고 있으나 소수의 이름만 소개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그의 백성들에 대항하도록 부여한 증거이니라 그것으로 백성에게 임하도록 하였느니라 나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위상을 부여하나니 실로 그대의 주님은 가장 현명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니라 나는 그에게 이삭과 야곱을 주고 그들 모두를 인도하였느니라 또한 그 이전의 노아도 인도하였으며 그의 자손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과 욥과 요셉과 모세와 아론도 인도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나는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보상을 내리니라 사가리아와 요한과 예수와 엘리야도 의로운 자 중에 있었노라 나는 이스마엘과 엘리샤와 요나와 룯을 다른 민족위에 두었노라 나는 그들의 선

조들과 그들의 후손들과 형제들을 선택하여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였느니라(6:83-87)

너희는 이렇게 말해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계시된 것과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계시된 것과 모세와 예수가 계시 받은 것과 예언자들이 주님으로부터 계시 받은 것들을 믿나이다 우리는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차별하여 믿지 아니하며 오직 그분에게만 복종할 따름이라(2:136)

이스마엘과 예녹과 이사야에 관한 이야기를 그대의 백성에게 상기시키라 그들 모두는 인내하는 자 중에 있느니라(21:85)

하나님께서서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예언자들과 사도들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그대에게 언급한 사도들이 있고 그대에게 언급하지 아니한 사도들이 있느니라(4:164)

하나님께서서는 예언자와 사도들을 동시에 보내지 않고 필요한 시대 필요한 민족에게 보내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을 하나님의 종교로 안내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들 예언자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 한 분만을 숭배하고 그분을 불신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따르지 말라는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나는 각 공동체에서 사도를 택하여 각 민족에 보내 하나님을 섬기

되 우상을 피하라 하였으니 저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도 있었고 방황하게 한 자도 있었노라 그러니 대지를 여행하며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의 말로가 어떠한가를 보라(16:36)

각 민족에 적용되는 법과 규범은 달랐다. 각 민족을 시험하기 위한 지혜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대에게 그 이전에 제시된 것을 추인하고 증거하는 성서를 제시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으로 그들을 심판하되 정의에서 벗어난 자들의 요구를 따르지 말라 내가 너희 각자에게 법과 규범을 주었느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의 공동체를 두시려했다면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너희를 시험하려 함이니 선행에 경주하라 너희 모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니라 그때 너희가 달리했던 것들을 내가 모두 밝혀줄 것이니라(5:48)

하나님께서서는 예언자 무함마드를 통해서 시공을 초월한 모든 인류를 위한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셨다.

무함마드는 어느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며 하나님의 사도이자 마지막으로 온 예언자이니라(33:40)

마지막 예언자가 사람들에게 호소한 것은 일위일체의 창조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분만을 숭배하고 그분만을 구세주로 믿고 그분에게 안식처를 간구하라는 메시지였

다.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정신적 행복과 마음을 평안을 얻으라고 하셨다.

나는 그대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자비로서 보냈느니라(21:107)

이 메시지는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하나님과 그분의 메시지를 믿는 신앙인들은 진정한 행복을 성취하고 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정신적 불안과 정신적 공백상태를 알코올과 마약으로 채우면서 위안을 찾고 있다. 정신적 불안 때문에 진정제에 의존하는가 하면 자살을 선택하는 자들도 늘고 있다. 이러한 것에 의존하는 것은 정신착란에 불과하다. 순간의 희열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그로인한 불행은 불 보듯 뻔하다. 갈증을 식히기 위해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순간 시원함을 느낄 수 있지만 소금물은 갈증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그러나 창조주의 존재를 믿고 그분에게 복종하며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한다면 외로움, 불안, 초조, 슬픔, 근심걱정이 사라지고 정신적 희열과 더불어 진정한 행복을 맛 볼 것이다.

15.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형상으로 창조하신 피조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다.

나는 인간을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였느니라(95:4)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벽하게 형상을 만드시고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 주셨다.

인간들이여 무엇이 너희의 주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드느냐 너희를 창조하사 완벽한 형상을 만든 후 균형을 이루게 하여주신 분이 누구시뇨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뜻하시는 대로 너희의 형상을 만드시니라(82:6-8)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상으로 그리고 완벽한 형상으로 지으셨다.

너희를 위해 대지를 안식처로 두시고 하늘을 지붕으로 삼으셨으며 너희를 창조하사 가장 아름다운 형체로 지으신 후 좋은 양식을 부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니라 너희 주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니라 온 누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이여 홀로 영광 받으소서(40:64)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위에 두셨고 명예를 주셨다.

나는 아담의 자손들을 영광되게 하였으며 육지와 바다에서 그들을 운반하여 주었으며 그들에게 좋은 양식을 베풀었으며 내가 창조한 어떤 것보다 인간들을 높이 두었느니라(17:70)

하나님께서는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인간으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순종토록 하였나니 실로 그 안에는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증표들이 있느니라 (45:13)

인간은 다른 피조물에서 진화된 것이 아니라 고유하고 독특한 피조물이다.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우화한 존재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가장 조화롭게 두시고 아담을 흙에서 창조하기 시작하셨느니라(32:7)

꾸란에 근거한 이슬람은 인간의 명예를 가장 존중하고 어떤 피조물보다 인간의 위상을 가장 높이 두고 있다. 꾸란은 인간을 동물적 속성이 있는 존재로 묘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하기 위해 인간에게 지혜의 선물을 주셨고 그것으로 우주의 위대

한 피조물들을 관찰하게 하여 그것들을 존재케 한 창조주를 발견하도록 하셨다.

내가 지옥을 둔 것은 많은 진들과 인간을 위해서라 그들은 가슴을 가졌으나 이해하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며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니 짐승과 같으니라 실로 그들은 방황하는 자들이요 소홀이 하는 자들이라(7:179)

이러한 오감을 우주의 존재에 대하여 생각하고 사색하는 데 지혜롭게 사용한다면 창조주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믿게 될 것이다. 이븐 알까임(Ibn Al-Qayyim)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을 선택하고 인간에게 명예를 부여하신 것은 우주를 존재케 한 창조주를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더하여 우주의 모든 피조물을 인간으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주어 창조주를 발견하고 그분을 사랑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지 않는 것들을 인간에게 베풀었습니다. 하늘과 땅,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물며 창조주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들에게도 베풀지 않은 지식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천사들로 하여금 자나 깨나 인간을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앓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를 막론하고 항상 인간을 보호하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을 위해 경전들을 보내주셨고 이를 가르칠 예언자들을 보내주셨

습니다. 이들 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위해 택함을 받은 분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부여받은 분들이 있었고, 특별한 지혜를 받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한 천국과 지옥도 두셨고, 보상과 징벌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와 금기를 멀리해야 할 책임도 주어졌습니다. 의무와 책임 수행에 따른 보상과 벌도 준비하셨습니다.”¹⁷⁾

17) madarij al-salikina 1/232

16. 인간이 탄생하는 단계

최초로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인간의 위상은 언급할만한 특별한 것이 없었다.

인간에 관하여 언급할 만한 가치가 아무 것도 없었던 기간이 있었지 않았느냐(76:1)

가잘리(Al-Ghazali)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숙고해 봐요. 창조될 때의 하찮은 인간에게 명예와 높은 위상을 안겨준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존재하지도 않았던 인간을 존재케 하여주고, 생명이 없었던 형상에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병어리상태에서 말을 하도록 하고, 귀머거리 상태에서 듣게 하도록 하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도록 하고, 몰랐던 것을 알게 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¹⁸⁾

18) ihya 'ulum al-din, vol. 3, p. 349

17. 인간은 무엇으로 탄생되는가

하나님께서서는 남성의 정자가 여성의 난자와 결합하여 인간이 탄생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간에게 자신이 무엇으로부터 탄생되는지 생각하게 하라 뿔어 나오는 한 방울의 정액으로 탄생하며 그 정자는 등뼈와 늑골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라(86:5-7)

인간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재탄생된다.

물로 인간을 창조시키신 후 혈연과 결혼으로 친족이 되도록 하신 분이 주님이시거든 주님께서서는 모든 일에 전능하시니라(25:54)

태아는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간직되고 있는 기간에 하나님에 의해 그 태아에게 운명이 주어진다.

내가 너희를 하찮은 정액으로 탄생시키지 않았더뇨 그리고 나는 그 정액을 안전한 곳에 두었으며 다만 알려진 기간까지라 내가 그렇게 탄생시키니 얼마나 훌륭하뇨(77:20-23)

자궁의 태아는 어두운 곳에서 3단계를 거쳐 이 세상에 탄생한다.

하나님께서 어머니 태내의 삼중 암흑 속에서 너희를 차례차례
탄생시키시니라(39:6)

18. 인간으로 탄생하는 단계

1. 첫 번째 단계(nutfah 단계)

이 단계에서는 남자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가 배합되는 과정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웅으로 남자와 여자를 탄생시키시니라 흘러나오는 정액으로부터라(53:45-46)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정자와 난자가 혼합되어 자궁에 안착한다. 정자와 난자가 혼합된 것을 누트파(nutfah: 혼합된 정액)라고 한다. 인간으로 발전하는 첫 단계다. 만일 그것이 자궁에 정착되지 않으면 그 정액은 죽는다.

실로 나는 혼합된 한 방울의 정액으로써 인간을 창조하여 시험코자 하였으며 그리하여 나는 인간이 듣고 볼 수 있도록 하였느니라(76:2)

이 단계에서 인간의 속성 일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불신한 인간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

서는 무엇으로 인간을 탄생시키시뇨 한 방울의 정액으로 탄생시켜 일정한 뜻의 운명을 주시니라(80:17-19)

인간의 성과 쌍둥이도 이 단계에서 결정된다.

하늘과 땅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노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하시되 당신이 원하는 자에게 여아를 주시며 당신이 원하는 자에게 남아를 주시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남아와 여아를 함께 주시기도 하시며 당신의 뜻에 따라 불임으로 두시기도 하시니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강하신 분이시라(42:49-50)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뜻에 따라 자궁 속에서 너희의 형상을 만드시니라 그분 외에는 신이 없으며 그분께서는 가장 강하시고 가장 현명한 분이시니라(3:6)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임신 기간이 결정된다.

하나님께서서는 암컷이 잉태하는 것과 자궁이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과 초과시키는 것도 알고 계시니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적절한 계산 안에서 이루어지니라(13:8)

혼합된 정액 ‘누트파’가 자궁에 정착되면 그 정액은 알라까(alaqah) 단계로 들어가 스스로 영양을 섭취한다.

한 방울의 정액으로 그 다음에는 응혈로 그리고는 살을 붙이니 완전한 형상과 완성치 아니한 형상이 되니라 이는 너희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자 함이라 또한 나의 뜻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태내에서 자라게 한 후 아이로써 탄생하게 하고 양육하여 충분히 성장하도록 하느니라(22:5)

2. 두 번째 단계(alaqah 단계)

이 단계를 알라까(alaqah)라 부른다. 이 단계에서는 피가 응혈되고 태아는 이 응혈된 피에서 스스로 영양을 섭취한다.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따라 읽어 암기하라 주님께서는 한 방울의 응혈된 피를 영양분으로 하여 인간을 탄생시키시니라 (96:1-2)

인간은 자신이 제멋대로 방치될 것이라 생각하느뇨 단지 흘러나온 정액의 한 방울에 불과하지 않았느뇨 그는 단지 흘러나온 정액의 한 방울에 불과하지 않았느뇨 그것이 응혈되고 하나님께서 모양을 갖추어 완전한 형상을 지으시면서 남성과 여성으로 자용을 두시니라(75:36-39)

3. 세 번째 단계(mudgah 단계)

세포와 살덩이가 형성되는 단계다.

그런 다음 그 정액을 응혈 시키고 그 응혈로써 살을 만들고 그 살로써 뼈를 만들었으며 살로써 그 뼈를 감싸게 한 후 다른 것을 만들었나니 가장 훌륭한 창조주 하나님이며 홀로 영광 받으소서(23:14)

이 단계에서 태아는 사람의 형상을 갖기 시작하여 인간의 형태가 된다.

땅과 하늘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폐되지 못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따라 자궁 속에서 너희를 만드시니라 그분 외에는 신이 없으며 그분께서는 가장 강하시고 가장 현명한 분이시니라(3:5-6)

이 단계에서 영혼이 태아에게 들어간다.

그것을 형상으로 만드사 그 안에 당신의 영혼을 불어 넣고 청각과 시각과 심장을 주시니라 그러나 너희는 감사하는 마음이 크지 못하노라(32:9)

각 단계마다 있어야 할 시간이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이븐 마스우드가 전하고 있다.

“사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누트파의 상태로 어머니 자궁에서 40일 동안 있게 되지요. 그런 후 알라끄 상태로 40일 동안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무드가 상태로

40일을 있게 되지요. 그 기간에 천사가 명령을 받고 내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혼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때 태아에게 4가지가 결정되는데 그것은 그의 양식과 그의 생애 기간과 그의 행위와 좋은 것과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천국의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인간이 있을 것이며 이때 천국은 한 팔 길이만큼이나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옥의 사람들처럼 어떤 행위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기록들이 봉해져 그것과 함께 그곳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지옥의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인간이 있을 것이며 이때 지옥은 한 팔 길이만큼이나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천국의 사람들처럼 어떤 행위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기록들이 봉해져 그것과 함께 그곳으로 들어갈 것입니다.”(부카리, 무슬림)

19. 영혼이란 무엇인가

영혼(ruh)이란 눈으로 볼 수 없고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것이지만 어떤 결과를 통해서 영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 영혼은 주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가장 위대한 증거다. 한편 유물론자들은 자신들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증거를 항상 요구하면서 영혼의 존재에 대하여 논박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영혼의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직접 그것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영혼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관해 조사하고 연구해도 알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고, 오감으로 느낄 수 없다.

불신자들이 영혼에 관하여 그대에게 물으리라 일러 가로되 영혼은 주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영역으로 너희에게 알려진 것은 조 금밖에 되지 않느니라(17:85)

라깅 아스파하니(Ar-Raghib al-Asfahani)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영혼은 육신이 살아 있을 때, 육신이 움직일 때, 느낄 때, 지식을 얻을 때, 어떤 견해를 갖고 있을 때, 그리고 선과 악을 식별할 수 있을 때 함께 한다. 만일 인간이 영혼을 잃어버리면 이러한 특징을 가질 수

없고 따라서 송장이 된다. 육체적 특징들이 육신에 붙어 다니는 것처럼 영적인 특징들도 붙어 다닌다.

무드가(mudgha) 단계에서 뼈들이 형성되고 그 뼈에 세포와 살이 형성된다.

그런 다음 그 정액을 응혈 시키고 그 응혈로써 살을 만들고 그 살로써 뼈를 만들며 살로써 그 뼈를 감싸게 하느니라(23:14)

아지즈(Aziz)의 이야기를 통해 뼈에 살이 형성된다는 것이 제지되고 있다.

뼈들을 보라 어떻게 그 뼈들을 맞추고 그 위에 살이 부합되는지를 보라(2:259)

태아는 계속 성장하여 때가 되면 이 세상에 탄생한다.

그 때를 아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라 또한 열매가 껍질을 벗고 나오는 것과 여성이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것도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니라(41:47)

살로 나는 아담을 흙으로 빚은 다음 그의 자손들을 방울의 정액으로 안정된 곳에 두었으며 그런 다음 그 정액을 응혈시키고 그 응혈로써 살을 만들고 그 살로써 뼈를 만들었으며 살로써 그 뼈를 감싸게 한

후 다른 것을 만들었나니 가장 훌륭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며 홀로 영광 받으소서 그런 후 너희 모두가 임종하게 하고 심판의 날 너희 모두를 부활하게 하시느니라(23:12-16)

사람들이여 부활에 관하여 의심하고 있다면 태초의 창조를 생각해 보라 실로 내가 너희를 흙에서 창조한 후 한 방울의 정액으로 그 다음에는 응혈로 그리고 살을 붙이니 완전한 형상과 완성치 아니한 형상이 되니라 이는 너희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자 함이라 또한 나의 뜻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태내에서 자라게 한 후 아이로써 탄생하게 하고 양육하여 충분히 성장하도록 하다가 너희 가운데 일부는 젊어서 죽음의 부름을 받게 하고 일부는 노령에 이르게 하여 알았던 자식마저도 알지 못하게 하노라 또한 그대는 황폐화 되고 생명을 잃은 대지를 보게 되리라 그러나 내가 그곳에 비를 내릴 때 대지는 다시 생동하고 솟아오르며 모든 종류의 아름다운 초목들이 생성하여 자라는 것을 볼 것이라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진리이시며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모든 일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니라(22:5-6)

하나님께서는 진리만을 말씀하신다.

나는 이 땅 가장 먼 곳까지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나의 말씀을 전하여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하리라 주님께서 모든 것에 대한 유일한 증인이라는 것으로 충족되지 않느뇨(41:53)

케이스 모어(Keith Moore) 교수는 “The Developing Human”

이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꾸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꾸란이 7세기 경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계시될 때까지만 해도 지식에 근거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무함마드는 하나님께서 보낸 예언자였다는 것을 입증시켜주고 있다.

20. 현세의 삶이란 무엇인가

현세의 삶이란 순간 사라지는 그림자 같은 것이다.

현세의 삶은 유희와 오락에 불과하며 허식과 권세도 그리고 풍성한 재산과 자손도 그러하거늘 그것을 비유하사 비온 뒤의 초목과 같아 농부들을 한 때 기쁘게 하지만 곧 시들어 빛깔이 누렇게 되고 메말라 부스러지는 지푸라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그리고 내세에서는 사악한 자들에게 가혹한 징벌이 있을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한 자는 하나님의 관용과 기쁨을 받게 되니라 실로 현세의 삶은 현혹된 향락에 불과할 뿐이라(57:20)

현세의 삶은 오락과 유희와 장식에 불과하다.

여기 너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현세의 삶을 위한 순간의 향락에 불과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으며 영원한 것이니라 이는 믿음으로 주님께 의탁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42:36)

현세의 삶은 순간에 불과하지만 내세의 삶은 영원한 것이다. 현세의 삶은 농경지와 같은 것으로 그곳에 좋은 씨를 뿌리면 풍년을 맞이할 것이요 나쁜 씨를 뿌리면 흉년을 맞이할 것이다.

현세의 생활을 비유하여 그들에게 설명하라 그것은 마치 내가 하늘에서 내려 보내는 물과 같아서 대지의 식물들이 흡수하여 싱싱하고 푸르게 되나 곧 시들어져 바람이 그것을 날려 버리노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대한 권세를 갖고 계시니라 재물과 자손은 현세의 장식에 불과하지만 선행은 주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보상과 가장 좋은 소망을 갖느니라(18:45-46)

현세에서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베풀어진다고 하셨다.

아브라함이 기도하였노라 주여 이곳을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어 주소서 하나님을 믿고 내세를 믿는 백성들에게 풍성한 과실들을 주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사 불신자들에게도 당분간 은혜를 베풀다가 그들을 불지옥으로 안내하여 비참한 종말이 되게 하리라(2:126)

나는 이들에게도 그리고 저들에게도 베풀니라 주님의 베품에는 끝이 없느니라 보라 내가 어떻게 저들 가운데 우열을 두었는가 내세에서 그 우열함이 더욱 더 크니라(17:20-21)

사흘 싸드(Sahl b. Sa'd)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도께서 줄홀라이파 지역을 지나면서 훈제된 양 한 마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훈제된 양 한 마리가 주인에게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교우들이 대답하길, ‘그렇습니다.’ 이 대답에 예

언자께서 말씀하길, ‘맹세하지만, 이것이 주인에게 별 가치가 없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이 세상은 더더욱 가치가 없지요. 현세의 삶은 파리 날개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을 마치고 저 세상에 갔을 때 불신자들은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하킴)¹⁹⁾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세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 죽은 후 가야 할 내세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현세의 삶을 좋아하나 내세가 더 좋으며 영원하느니라
(87:16-17)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현세를 내세에 비유한다면 바닷물에 손가락을 넣어 묻어나오는 물이 현세의 삶이라면 내세의 삶은 아무 것도 줄지 않는 바다와 같지요.”(무슬림)²⁰⁾

아무나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 하나님 가까이서 그분을 기쁘게 하는 신자들만이 그곳의 축복을 만끽할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진리를 증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자선을 베푸는 것이다.

19) al-mustadriq ala al-sahihaini vol. 4, p. 341(no. of hadith 7847)

20) sahih muslim vol. 4, p. 2193(no. of hadith 2858)

자선을 베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진리를 증언하는 자에게는 내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여 줄 것이요 그러나 인색하고 스스로 자족하는 자로 생각하면서 진리를 거역하는 자에게는 내가 지옥으로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여 줄 것이니라(92:5-10)

내세를 위해 현세를 버려서도 안 된다. 죽기 전에는 현세를 떠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먹고, 마시고, 입고, 부부생활은 현세의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용한 것들이다.

일러 가로되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으신 당신의 장식품과 깨끗한 이 양식들을 누가 금기하느뇨 일러 가로되 그것들은 현세에 살면서 믿음을 갖고 심판의 날을 믿는 자들을 위한 좋은 것이니라(7:32)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지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을 추구하려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간청하십시오. 그렇게 함에 소홀히 하지 마시오. 어떤 재앙이 닥쳤을 경우, ‘만일 내가 이렇게 혹은 저렇게 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안했을 텐데!’라고 말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놓은 까다르(qadar)야.’라고 말해야 한다. ‘만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됩니다.”(무슬림)²¹⁾

꾸란은 일상생활에서의 중용을 촉구하고 있다.

너희의 손이 너희의 목에 족쇄가 되지 않도록 하되 너무 펼쳐도 아니 되느니라 이는 너희가 비난을 받지 아니하고 빈곤하지 아니하도록 함이라 실로 주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자에게 양식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 궁핍하게 하시니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지켜 보고 계시니라(17:29-30)

21) sahih muslim vol. 4, p. 2052(no. of hadith)

21. 인간과 진(jinn)들을 창조한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과 진(jinn)들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만을 숭배하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다.

내가 진과 인간을 창조함은 그들이 나만을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그들에게 양식을 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들이 나를 부양해줄기를 바라지도 않느니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권능과 힘의 주님으로써 양식을 주시는 수여자이시니라(51:56-58)

아무런 목적 없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목적 없이 창조하였으며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뇨 진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옥좌의 주인이시니라(23:115-116)

하나님께서서는 각 세대의 민족들에게 예언자와 사도를 보내 인간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바른 길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도록 하셨다.

인류는 하나의 공동체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복음의 전

달자로서 경고자로서 그곳에 보내셨느니라 그들과 함께 진리의 성서를 보내 이것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사안들에 관하여 사람들을 심판하도록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들은 분명한 증거들이 제시되자 증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서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기 시작하였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 그들이 달리했던 것에 대하여 믿는 자들을 진리로 인도하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니라(2:213)

이러한 상황은 예언자 무함마드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위한 완성된 마지막 메시지가 소개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일러 가로되 너희가 하나님으로 숭배한 것들을 보여주라고 할 때 저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하니라 하나님만이 가장 강하시고 가장 현명한 분이시기 때문이라(34:27)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분명하고 확실하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 목적을 수행하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자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이 목적을 수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정신적 불안을 겪게 될 것이요 초조하고 불안한 삶을 살면서 슬퍼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보낼 것이라 나의 복음을 따르는 자는 방황하지 아니하고 불행하지 않을 것이니라(20:123)

목적 없이 창조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창조된 것은 모두 각각의 목적을 갖고 있고 그 안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지혜와 유익함도 있다.

나는 하늘과 땅과 그 사이의 만물을 무의미하게 창조하지 않았느니라 이는 믿음이 없는 자들의 억측일 뿐이라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불지옥의 징벌이 있느니라(38:27)

하나님에 대한 숭배는 그분께서 명령한 것을 수행하고 그분께서 금기한 것을 준수함으로써 완성된다. 창조주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숭배를 완성하는 것이다.

실로 이것이 바른 길로 가는 하나님의 길이니라 그러므로 그것을 따르되 다른 길로 가지 말라 그것은 너희를 주님의 길로부터 탈선케 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니 너희는 사악한 것을 경계할 지니라(6:153)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한 종교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들을 갖고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그것들로 하나님을 부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을 피하라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것으로 징벌을 받을 것이니라(7:180)

22. 끝(nihayah)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으로 현세의 삶이 끝난다.

땅 위의 모든 것은 소멸하나 지고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니라(55:26-27)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필연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피해보려고 노력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일러 가로되 너희가 피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죽음은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라 그때 너희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저지른 모든 사실을 알려주실 것이니라(62:8)

인간이 생명을 연장해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그것 역시 태어날 때 생명의 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고 단 하루도 연장되거나 단축되지 않는다.

모든 인간에게 정하여진 기간이 있으니 그 기간이 이르면 인간은

단 한 시간도 유예하거나 앞당길 수 없느니라(7:34)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인간이나 진들에게 하나님은 다 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너희의 영혼이 목까지 이를 때 너희는 지켜보리라 내가 너희보다 그에게 가까이 있으나 너희는 보지 못하니라 너희가 주장했듯이 계산과 징벌로부터 면제가 되었다면 그리고 너희가 진실이라면 그 영혼을 불러오지 못하느뇨(56:83-87)

죽음에 이르면 믿을 수 있으나 그때의 믿음은 너무 늦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도 이미 놓쳐버린 것이다.

죽음이 저들에게 이르자 한 사람이 말하길 주여 저를 돌려보내 주소서 저의 남은 생애 동안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나니 그것은 그가 하는 말에 불과하니라 저들 앞에는 부활하는 그날까지 장벽이 있을 뿐이라(23:99-100)

인간이 언제 어디서 어떤 일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이다.

종말의 시각은 하나님만이 아시니라 비가 내리는 것과 태아에 있는 것과 너희가 내일 무엇을 얻을 것이며 너희가 어느 곳에서 죽을 것인가 하는 것도 하나님만이 아시니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31:34)

죽음에는 두 종류가 있다. 큰 죽음이 있고 작은 죽음이 있다. 전자는 영혼이 육신을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 것이고 후자는 수면 상태를 말한다. 수면을 취하고 있을 때 영혼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다. 즉 영혼이 돌아오면 잠에서 깨어난다.

하나님께서서는 죽음에 이른 인간의 영혼을 거두어가시니라 죽지 않고 수면상태에 있는 자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기한이 된 영혼을 찾아가시며 기한이 이르지 아니한 영혼을 잠시 유예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니라 실로 이 안에는 숙고하는 백성들을 위한 교훈이 들어 있노라 (39:42)

23. 죽음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죽음 후 소생되어 현세에서 쌓은 업적과 함께 부활된다.

하나님께서서는 진리이시며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모든 일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분이다(22:6)

불신자들은 인간이 죽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며 소생이나 부활 같은 것은 없다고 믿어 왔다. 이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소생과 부활이 없다고 주장 하니라 일러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노라 주님께 의해 부활되며 너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그에 대한 보상과 대가를 받게 되니라 그렇게 함이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니라(64:7)

불신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유혹하며 죽음 후 소생되어 부활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도록 만든다.

우리가 죽어 흙이 되고 뼈만 남는데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가 말하지 않았더뇨 우리가 약속받은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23:35-36)

삶과 죽음은 단순한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삶과 죽음도 자신들처럼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현세 외에는 아무 것도 없으며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세상사의 일에 불과할 뿐 세월이 가면 그렇게 될 뿐이라고 그들은 말하노라 실로 그들은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짐작으로 말할 뿐이라(45:24)

불신자들 중의 일부는 믿을 수 있도록 그 증거를 제시하여달라고 요구한다.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노라 우리가 한번 죽어버리면 그만이오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오 그러므로 너희가 진실이라면 우리 선조들을 되돌려 주라고 하노라(44:34-37)

이들의 요구는 단호히 거절되었다

저들이 말하길 우리의 뼈가 산산조각이 될 때 우리가 소생하여 부활할 수 있단 말이뇨 일러 가로되 너희가 돌과 쇠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하지 아니 하니라 너희 마음속에 가장 단단한 것으로 생각되는 어떠한 종류의 피조물이라도 부활될 것이니라 누가 우리의 생명을 되돌려 주느냐고 저들이 묻노라 일러 가로되 최초에 너희를 창조한 분이시라 저들은 또 고개를 흔들며 그것이 언제이뇨 라고 물으니 일러 가로되 멀지 않았노라고 말하라 주님께서 너희를

부르는 어느 날 너희는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의 부름에 응하리라 또
한 너희는 너희가 머물렀던 기간이 순간이라 생각하리라(17:49-52)

그들은 보상과 대가가 있을 그 날을 거절하며 거짓말을 한다

자신들에게 결코 종말이 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불신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그렇지 아니 하니라 주님을 두고 명세하건대 그것은 너희에게
다가오고 있노라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알고 계신 분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원자만큼이나 작은 것도 그리고 그보다 더 작은 것
도 또한 큰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나니 모든 것이 분명한
성서 속에 기록되어 있노라 하나님께서는 믿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시리니 그들은 용서를 받고 풍성한 양식을 받게 되니라 그
러나 나의 증표들에 대항하여 도전하고 나의 계획을 좌절시키려는 자
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징벌이 있을 것이라(34:3-5)

그날 모든 인간이 소생된다.

너희 모두를 창조하고 너희 모두를 소생시키는 것은 한 사람을 창
조하고 한 사람을 부활시키는 정도에 불과하니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31:28)

보상을 받거나 대가를 치르게 되는 날 부활된 모든 인간은 한 곳에
집결되며 하나님께서는 집결된 인간이 어느 세대에 살았는지를 모두
아신다.

일러 가로되 그러하니라 옛 선조들도 그리고 후세의 사람들도 모두가 잘 알려진 어떤 날의 상봉을 위하여 부름을 받아 다 같이 모이게 될 것이라(56:49-50)

나는 너희보다 먼저 온 세대와 여러분 세대와 그리고 뒤에 올 세대를 모두 알고 있느니라(15:24)

집결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현세에서 좋은 일을 행한 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게 되고 악한 짓을 한 자들은 징벌을 받게 된다.

자신이 행한 선과 자신이 행한 악 앞에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그 날 각자는 자신과 자신이 행한 악 사이에 굉장한 공간의 거리가 있었으면 하고 바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한 징벌을 너희에게 경고하시면서 당신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니라(3:30)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활시켜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기록하여 두셨으며 만사에 증인이 되시는 분이시라(58:6)

그날 두 번째 나팔이 울리면 각자는 서로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하며 피하고 도주한다.

고막이 터질듯 한 소리가 들릴 때면 인간은 그의 형제들로부터 도주하고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의 아내와 아이들에게서 도주하노라 그날 각자는 타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노라(80:33-37)

현세에서 악한 짓을 했던 자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자신들이 받게 될 징벌을 직접 보게 된다. 그러자 어떠한 것을 바치고서라도 그 징벌로부터 피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란다.

비록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안다하여도 그러할 것이며 죄인들은 그날의 징벌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식들까지 바치려고 하며 자신의 아내와 형제도 자신을 보호해준 친척도 그리고 자신을 구할 수 있다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그 징벌을 피하려 할 것이니라(70:11-14)

그러나 이미 늦었다. 이제 징벌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신하는 자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곱으로 바쳐 부활의 날에 있을 징벌로부터 면죄 받고자 할지라도 그 어느 누구의 속죄도 수락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징벌만 있을 것이니라(5:36)

이날 수락되는 것은 현세에서 사는 동안 창조주를 믿고 실천한 선행의 업적뿐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너희의 재산과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선을 실천하는 자들이니라 이들은 자신들이 실천한 것에 곱절이 더하여져 보상을 받을 것이요 천국의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니라(34:37)

주님의 증표가 도래하는 날 이전에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선을 실천하지 아니한 자가 그때서야 그것들을 믿는다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니라 일러 가로되 기다리라 우리도 역시 기다리고 있느니라(6:158)

현세에서 축적한 재물들은 무용지물이다. 살아 있을 때 축적했던 재물들은 죽음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처음 창조했을 때처럼 빈손으로 홀로 오니라 또 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베풀었던 모든 것을 뒤에 두고 오니라(6:94)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으로 가는 고인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그가 살아생전에 쌓은 업적뿐이다. 티끌만큼이라도 선행을 행한 자는 그 선을 가져가고 티끌만큼의 악을 저지른 자는 그 악을 가지고 가는 것뿐이다.

티끌만한 선을 행한 자도 그것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요 티끌만한 죄를 저지른 자도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99:7-8)

24. 부활 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부활이 되면 인간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다. 천국가고 지옥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며 결정이 되고 나면 그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나는 심판의 날 공정한 저울을 준비하나니 어느 누구도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함이라 비록 겨자씨만한 무게일지라도 나는 그것을 드러내 계산하리니 계산은 나만으로 충분하니라(21:47)

예언자와 사도께서 안내한 종교와 그들을 통해서 소개된 경전, 즉 토라, 인질(복음서), 꾸란에 따라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느 날 나는 모든 인간을 그들의 안내자와 함께 호출할 것이라 그때 모든 인간은 자신의 오른 손에 놓인 자신들의 업적에 관한 기록을 읽게 될 것이며 조금도 부당하게 취급되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의 증표를 보지 못하는 현세에서의 장님은 내세에서도 장님이 되어 길을 헤매게 될 것이라(17:71-72)

무슬림들은 천국에 들어가 그곳에서 기쁨을 만끽하며 영생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만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며 그분께서 금기한 것을 자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안전한 곳에 있게 되나니 그곳은 샘이 있는 낙원이라 그들은 그곳에서 고급 비단 옷을 걸치고 서로 마주보고 있느니라 이렇듯 은혜를 베풀고 아름답고 눈이 큰 여자로 짝을 지워 줄 것이라 그들은 그곳에서 평온하고 안락한 가운데 온갖 과일을 원하는 대로 즐길 것이라 그리고 그곳에서는 두 번 다시 죽음을 맛보는 일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타오르는 불지옥의 징벌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니라 이것이 바로 그대 주님의 자비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승리라(44:51-57)

천국에 들어간 신자들은 기쁨을 만끽한다.

그들의 선행에 대한 보답으로 그들의 눈을 기쁘게 할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느니라(32:17)

다음은 이들이 만끽할 축복에 대한 것으로 아부 후라이라가 신성 하디스(hadith qudsi)에서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나는 경건한 나의 종들을 위해 보상을 준비하여 두었느니라. 그것은 현세에서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이요, 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며, 어느 인간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이다.”

“천국에 들어갈 첫 번째 집단은 온달과 같고 그 다음에 들어갈 집

단은 밤하늘과 가장 밝은 별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소변도 보지 않고, 배변도 보지 않고, 침이나 가래도 뱉지 않습니다. 그들의 머리빗은 금으로 만들어졌으며, 그들이 흘리는 땀은 현세에서 맡아보지 못한 머스크 향수가 되고, 그들이 사용할 향은 인도산 오드(od)입니다. 그곳에는 그들을 맞이할 후르아인(hoor al-ain) 아내가 있으며 그녀들은 현세의 아내들과 달리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의 그들은 최초의 조상 아담처럼 양팔 길이의 60배가 될 것입니다.”(이븐 히반)²²⁾

“천국에 거주하는 신앙인들은 먹고 마시나 트림도 하지 않고, 가래나 침을 뱉는 일도 없고, 배변을 보는 일도 없습니다. 그들의 몸에서 나오는 땀은 머스크 향기가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무슬림)²³⁾

다음은 자이드 빈 아르캄이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어떤 유대인들이 예언자를 찾아와 말하길, ‘까심(Abu al-Qasim), 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예언자께서 대답하시길, ‘천국에서 먹고 마시는 자는 누구나 1백 사람이 먹고 마셔서 생기는 식욕과 체력과 성욕의 힘을 갖지요.’ 그들이 또 물었다. ‘먹고 마시면 반드시 배설을 해야 할 텐데요.’ 예언자께서 대답하시길, ‘그들은 먹고 마신 것은 피부를 통해서

22) sahih ibn hibban vol. 16, p. 464(no. of hadith 7437)

23) sahih ibn muslim vol. 4, p. 2180(no. of hadith 2835)

땀으로 나오는데 땀은 머스크 향기가 되어 발산되고 배는 줄어들지요.’”(이븐 히반)²⁴⁾

다음은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누가 부르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항상 젊은 청년의 상태로 허약해지거나 늙지 않습니다. 슬프거나 외롭지 않고 항상 즐거울 것입니다.’”²⁵⁾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말하길 너희 앞에 있는 천국을 보라 너희가 행한 선행으로 너희가 그것을 물려받은 것이라(7:43)

다음은 천국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게 될 신앙인들이 누릴 축복에 대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불지옥을 떠나 마지막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불지옥에서 기어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라.’”

24) sahih ibn hibban vol. 16, p. 443(no. of hadith 7424), ‘아부’는 아버지, ‘까심’은 예언자의 무함마드의 아들 이름으로 아랍 사회에서는 자식이나 손자가 있을 때는, ...의 아버지, ...의 할아버지 라고 부른다(역자 주)

25) sahih ibn muslim vol. 4, p. 2182(no. of hadith 2837)

그곳에 도착하자 그곳이 가득 찬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돌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곳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시길, ‘천국으로 들어가라.’ 그가 그곳에 도착하자 그곳이 가득 찬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돌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곳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시길, ‘천국으로 들어가라. 너를 위해 우주보다 10배가 되는 축복이 있을 것이니라.’ 그가 또 말하길, ‘주여, 저는 당신이 저를 놀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저에게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내레이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을 듣고 사도님께서 어금니가 보일 정도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게 될 자들이 받게 될 축복이지요.’”(부카리, 무슬림)²⁶⁾

한편 예언자들을 믿지 않고 그분들을 통해서 계시된 메시지들을 불신한 자들의 최후 목적지는 불지옥이다. 그들은 그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불지옥이 준비되어 있노라 고통은 끝이 없

26) sahih al-bukhari vol. 5, p. 2402(no. of hadith 6202)

으며 저들은 죽지도 아니하며 저들에 대한 징벌도 감소되지도 않노라 그와 같이 나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벌을 내리니라 이때 저들은 그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구원을 간청하노라 주여 저희를 구하여 주소서 저희가 실천하지 안했던 선을 실천하겠나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 안에서 숙고할 충분한 삶을 주지 아니 했더뇨 너희에게 경고자가 갔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행한 결과를 맞볼 때라 이처럼 죄인들에게는 구원자가 아무도 없노라(35:36-37)

다음은 불신자들이 불지옥에서 받게 될 최소한의 징벌에 대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보상의 날 불신자들이 불지옥에서 받게 될 최소한의 징벌은 이러하지요. 두 개의 불타는 목탄이 발바닥의 장심에 놓아지면 그들의 머리는 불 위에 있는 요리 냄비처럼 지글지글 끓을 것입니다.”(부카리)²⁷⁾

다음은 천국에 거주할 자들이 받게 될 축복과 지옥에 거주할 자들이 받게 될 징벌은 더욱 더 증가한다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죽음은 검고 하얀 솜양의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부를 것입니다. ‘천국의 사람들이여!’이 말을 듣고 그들은 균중 위에 있는 것을 보려고 할 것입니다. 부르는 자가 다시 말하길, ‘여러분은 이것을 아십니까?’ 그들이 대답할 것입니다. ‘예, 이것은 죽음입니다.’

27) sahih al-bukhari vol. 5, p. 2400(no. of hadith 6194)

모두가 그것을 볼 것입니다. 그런 후 그 숫양이 희생될 것입니다. 그런 후 그가 말할 것입니다. ‘천국의 사람들이여 죽음을 보지 말고 영원히 사시오. 지옥의 사람들이여, 죽음을 보지 말고 영원히 사시오.’”

그런 후 예언자께서 다음 꾸란을 인용하여 말씀하셨다.²⁸⁾

무함마드여 저들에게 고통의 날을 경고하라 저들이 믿음을 게을리 할 때의 일은 이미 결정되느니라(19:39)

다음은 천국에 가기 전에 지옥을 보고 지옥에 가기 전에 천국을 본다는 예언자의 말씀이다.

“무덤에 있는 동안 천국에 들어갈 자는 그곳에 가기 전에 먼저 지옥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아니했다면 내가 이런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는 더욱 더 큰 축복을 만끽한다. 무덤에 있는 동안 지옥에 들어갈 자는 그곳에 가기 전에 천국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이런 불행과 징벌을 맛보지 않을 텐데!’ 그리고 그는 더욱 괴로워하고 슬퍼한다.”(부카리)²⁹⁾

여기서부터 내세의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 믿음으로 선행을 쌓은 자는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이요 믿음을 부정하고 악을 행한 자는 지옥에서 영원한 불행을 맛볼 것이다.

28) sahih al-bukhari vol. 4, p. 1760(no. of hadith 4453)

29) sahih al-bukhari vol. 5. p. 2402(no. of hadith 6200)

25. 꾸란에 언급된 소생과 부활의 증거

꾸란은 여러 절에서 죽은 자가 소생되어 부활된다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절대자께서 죽은 자를 소생시키고 부활시킬 수 있는 절대적 힘을 가진 분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믿지 아니한 인간들이 말하길 내가 죽어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이뇨 전에 존재하지 아니했을 때 내가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을 인간은 망각하고 있느니라(19:66-67)

메마른 불모지에 비를 내려 온갖 곡류와 채소류를 생성케 하는 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증표 중에 그대는 불모의 대지를 보리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비를 내리니 생명이 싹트고 수확이 증가하지 않느뇨 실로 대지를 소생시키는 분은 죽은 자도 소생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라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이시라(41:39)

하늘과 땅 그리고 우주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존재케 한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또한 끊임없이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하느뇨 실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라(46:33)

죽어 있는 것처럼 잠에 빠져 있다가 깨어나는 것도 절대자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잠을 작은 죽음이라 일컫는다.

하나님께서서는 죽음에 이른 인간의 영혼을 거두어가시니라 죽지 않고 수면상태에 있는 자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기한이 된 영혼을 앗아가시며 기한이 이르지 아니한 영혼을 잠시 유예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실로 이 안에는 숙고하는 백성들을 위한 교훈이 들어 있노라(39:42)

알아스 빈 와일이 뼈를 들고 예언자를 찾아와 그것을 부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무함마드, 흙이 되고 먼지가 된 것을 절대자께서 소생시킨다고요?” 이에 예언자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길, “절대자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당신은 죽게 하고 당신을 다시 소생시켜 부활시킨 후 불지옥에 넣을 것입니다.”

전언자에 따르면 이 사건이 있던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시가 내려졌다.³⁰⁾

인간은 내가 한 방울의 정액으로 탄생시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
뇨 보라 인간은 드러난 논쟁자라 인간은 나와 유사한 것을 지어내며
그가 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고서 말하길 씩어버린 이 뼈에 누가
생명을 부여하느뇨 일러 가로되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그것을
소생시킬 것이니 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것을 창조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해 푸른 나무로 불을 만드
시며 너희는 그것으로 불을 붙이노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게 그것과 같은 것을 지으실 능력이 없겠느뇨 보라 실로 하나님께서
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절대자 창조주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뜻을 두시고 있어라 명령하시면 그것이 있게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모
든 만물 위에 계시며 만물의 왕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나니 너희 모
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니라(36:77-83)

30) al-mustadrik ala al-sahih vol. 2, p. 466(no. of hadith 3606)

26.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심판의 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종교를 안다면 내세에서 영원한 행복을 만끽할 것이요 절대자의 영원한 자비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창조주 절대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종교가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방법이다. 그 종교는 바로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이슬람 종교다.

27. 이슬람이란 무엇인가

이슬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계시한 신법 샤리아(shariah)이며 이전의 모든 종교를 폐기하는 종교다.

사도를 통해서 복음과 진리의 종교를 보내시고 그것을 다른 모든 종교 위에 두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그런데도 불신자들은 그것을 싫어하느니라(61:9)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수락하시는 종교는 이제 이슬람뿐이다. 그 밖의 종교는 거절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 진리를 거역한 무리들이 있었으니 그들에게는 불지옥이 약속되었느니라 (11:17)

이슬람이란 하나님께 복종하고, 성부(아버지)와 성자(아들)를 두지 않는 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싫든 좋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분에게 비유되거나 견주는 생각과 행위(shirk)를 버리는 것이다. 지구촌 18억 인구가 이 종교를 따르고 있다. 이슬람이 진리의 종교가 아니라면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물질적 지원이 없고 타종교처럼 선교를 아니 해

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슬람 종교를 이탈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타종교를 이탈하는 숫자와 비교하면 이슬람을 이탈하는 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를 받아들인다면 내세에 가서 큰 손실을 볼 것이라고 하였다.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를 추구하는 자가 있다면 결코 수락되지 않을 것이요 내세에서 손해를 본 자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니라(3:85)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나 무함마드의 생명이 달려있는 분에게 맹세하지만, 유대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내가 이 세상에 예언자로 온 것을 믿지 않는 자는 누구나 불지옥의 거주자가 될 것입니다.”(무슬림)³¹⁾

31) sahih muslim vol. 1, p. 134(no. of hadith 153)

29. 이슬람의 오행(amal: 五行)

이슬람은 선서와 선서한 내용에 대한 실천과 믿음을 중요시 한다. 선서와 실천(예배)은 이슬람의 핵심적 기둥이다. 그래서 이것에 근거하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즉 무슬림과 비무슬림으로 구분이 된다.

예배를 드리라 예배는 수치와 그릇된 행위를 예방하여 주니라
(29:45)

그들의 재산 중에서 자선금을 취하라 그것으로 그들을 정화하고 순결케 하라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실로 그대의 기도가 그들에게는 평온의 근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니라(9:103)

대순례는 명시된 달에 수행하되 순례를 행하는 자는 성욕과 간사하고 사악한 마음을 갖지 말 것이며 언쟁도 하지 말라 그리고 선행을 실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니라 내세를 위한 양식을 마련하되 가장 좋은 양식은 이성이 있는 자들의 정직한 품행이니라 그러므로 현명한 자들이 나만을 두려워하라(2:197)

1. 선서(shahadataani: 두 가지 선서)

하나님 외에는 숭배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선서라면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종이자 사도라는 것이 두 번째 선서다. 그래서 두 가지 선서라고 한다. 이 두 가지 문구를 하나로 보는 학자는 하나의 선서(shahaadah) 혹은 칼리마(kalimah)라고도 한다. 이 선서를 가리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라고 한다.

첫 번째 선서 문구는, ‘라 일라하 일랄라’이고 두 번째 문구는, ‘무함마드 압두후 와 라술루후’이다. 전자의 의미는 하나님 외에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뜻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주를 창조할 수 없다.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도 그 분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그 분 외에는 숭배를 받을 자격이 아무도 없다.

후자의 의미는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분의 심부름꾼, 즉 사도라는 뜻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것을 모든 인류에게 전파하는 명령을 받은 마지막으로 온 사도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말한 것을 따르고 그분께서 금지한 것을 삼가야 한다.

2. 예배(salah)

예배는 자신과 주님과 대화 수단이다. 현세의 삶에만 열중하고 있다 보면 믿음이 약해질 수 있으나 예배를 알리는 아잔(azan) 소리를 들으면 약해졌던 믿음이 다시 힘을 얻는다. 아잔과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지속적인 관계가 지속된다.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하루 다섯 차례 수행한다. 남자는 모스크에 나가 다함께 예배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예배하면 된다. 왜냐하면 지구촌 전체가 예배당이라고 예언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다함께 예배함으로써 친교를 할 수 있고 친교를 통해서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단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모스크에 나오면 함께 예배했던 형제가 보이지 않을 때 그 이유를 알 수 있고 따라서 그가 몸이 아파 나오지 못한다면 그를 방문하여 위로할 수 있다. 신앙심이 약해져 나오지 않을 경우 충고를 할 수 있다. 정해진 동일한 시간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서서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한 줄로서 서서, 메카를 향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계급, 직급, 신분, 민족, 계보, 부자, 빈자,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모든 사회적 신분이 초월되어 하나가 된다.

3. 이슬람세(zakah)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경제적 여유가 있는 무슬림이 여유가 없는 무슬림에게 소액의 일정 금액을 주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손을 벌리고 구걸하지 전에 베풀어 그들이 구걸하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갖지 않도록 한다. 니삽(nissab)에 해당하는 일정량의 재물을 가진 무슬림이면 누구나 내야할 세금이다.

그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진실한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께 헌신하며 예배하고 이슬람세를 바치는 것들로 이것이 바른 길을 걷는 백성들을 위한 종교이니라(98:5)

다음은 이슬람세의 몇 가지 조건이다.

1) 이슬람세 납부 대상자는 이슬람 종교가 설정하고 있는 일정량의 재물을 소유한 무슬림이어야 한다.

2) 그 일정량의 재물은 1년 동안 소유된 것이어야 한다. 소유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다면 이슬람세 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이슬람세 수혜 대상자는 꾸란에 언급된 다음의 8가지 부류에 속해야 한다.

실로 자선금은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와 거기에 종사하는 자와 마음의 위로를 받을 자와 노예와 채무자와 하나님의 길에 있는 자와 그리고 여행자들을 위한 것이거늘 이는 하나님님의 법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고 가장 현명한 분이시니라(9:60)

내야 할 이슬람세는 1년 동안의 순 수익에서 2.5%다. 이 세율에 의해 거두어들인 이슬람세는 무슬림 사회의 빈자들을 돕는데 쓰인다. 이슬람세는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과 필요한 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슬람세를 내는 무슬림들의 마음을 순화하고 부자들에게 대한 가난한 사람들의 질투와 시기심을 없애주는 데 목적이 있다.

4. 라마단 달의 단식(saum)

무슬림은 매년 라마단 한 달 동안 단식을 해야 한다. 아침 새벽예배

(salat al-fazr) 시간을 알리는 아잔(azan) 소리가 나온 순간부터 그날 석양예배(salat al-magrib) 시간을 알리는 아잔 소리가 나오는 순간 까지 단식을 해야 한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부부생활, 욕설 등 단식을 깨뜨리는 것들을 삼가고 자제해야 한다. 단식은 무슬림들에게 뿐만 아니라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 모두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이다

믿는 자들이여 너희 선임자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에게 단식이 의무화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너희에게도 단식은 의무이니라 그러므로 인내심을 통하여 의로워질 것이니라(2:183)

단식의 목적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물질적인과 외적인 것만을 자제하는 데 있지 않다. 정신적인 것과 내적인 것, 거짓말, 비방과 중상 모략, 시기와 질투, 기만과 속임 등을 자제하고 삼가는 것이다. 공격적이거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자제하는 데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거짓말과 거짓 언행을 자제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거짓말을 자제하고 거짓 언행을 자제하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부카리)³²⁾

단식은 물질적 욕구에 대한 자신과의 정신적 싸움이다. 단식을 통해서 다양한 유익함을 얻을 수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

32) sahih al-bukhari vol. 2, p. 673(no. of hadith)

씀이다.

“인간의 모든 언행은 모두가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단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식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식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단식은 하나의 방패입니다. 단식을 하는 무슬림은 못된 언행을 해서는 안 되고 고향을 지르거나 소리를 질러도 안 됩니다. 누가 시비를 걸거나 싸움을 하려하는 자가 있다면 단식하는 자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나는 지금 단중 중에 있습니다.’ 무함마드의 생명이 달려있는 분에게 맹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머스크 향기보다 단식하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냄새를 더 좋아하십니다. 단식하는 자는 두 번의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는 단식을 깨뜨리는 이프타르(iftar)를 할 때의 기쁨이요 다른 하나는 단식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의 기쁨입니다.”(부카리)

부유한 자들은 단식을 통해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의 마음과 심정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면서 가난한 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깨닫고 베풀게 된다.

5. 성지순례(hajj)

성지순례 하지는 메카에 있는 신성한 하나님 집 카오바(ka'bah)로 가서 정해진 기간 정해진 장소에서 일정한 의식을 수행하는 것이다. 일정한 나이고 되고, 경제적 여유가 있고, 정신적으로 건전하고, 건강이 허용되는 무슬림은 일생에 한 번은 반듯이 수행해야 할 의무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질병으로 여행을 갈 수 없을 경우에는 하지를 마친 자로 하여금 그를 대신하여 하지를 하도록 한다. 한편 다른 조건들은 충족되어도 경제적 능력이 되지 못한 무슬림에게는 의무가 아니다.

97. 이곳에는 증표로써 아브라함의 성소가 있느니라 그리고 이곳에 들어간 자는 누구든 안전할 것이며 능력이 있는 백성에게는 순례가 의무이니라 그러나 믿음을 거부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만물의 절대자임을 보여 주실 것이니라(3:97)

하지는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연례 모임이요 만남이다. 전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무슬림들이 메카에서 만나 하나님을 위한 의식을 행한다. 모두가 이흐람(ihram)이라 불리는 하얀 순례복을 걸치고 한 목소리로 순례가를 부르며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주님을 부르며 동일한 의식을 수행한다.

랍바이칼라흐마 랍바이크, 랍바이카 라 샤리카 라카 랍바이크, 인 날 함다 완니으마타 라카 왈물크, 라 샤리카 라카

의미:

주여, 제가 당신의 부름을 받고 이곳에 왔나이다. 당신에게 비유되거나 견줄 수 있는 것 아무도 없습니다. 감사와 은혜와 모든 권세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에게 비유될 수 있는 것 아무도 없습니다.

순례 신청을 하고서 순서가 오지 않아 50년 이상을 기다려 순례를 가는 무슬림도 있다. 금년에 가고 싶은데 내년에 차례가 되는 사람은 빨리 못가서 안달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무슬림이 있다.

이처럼 하지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의 평등이 실현되는 의식이다. 백인과 흑인, 부자와 가난한 자, 통치자와 서민, 언어와 민족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하나 된 의식이요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형제애를 나누는 의식이다.

30. 이슬람의 육신(iman: 六信)

1. 창조주 하나님(Allah)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란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그분 외에는 숭배 받을 존재가 없으며 그분에게 비유되거나 견줄 수 있는 것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뜻한다.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그것을 존재케 한 실체가 있다. 존재케 한 실체가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우주 역시 그것을 존재케 실체가 있다. 그분이 바로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이다.

실로 주님께서는 옛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 권좌에 오르신 하나님이시며 밤을 두어 낮을 가리고 또 서둘러 밤을 쫓으며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후 그것들의 운행을 자신의 권능아래 두신 분이시니라 진실로 창조와 말씀이 주님의 것이니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이며 홀로 영광 받으소서(7:54)

주권(Rububiyah)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분이시며 우주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시다.

일러 가로되 실로 나의 예배와 내가 바치는 제물과 나의 생명과 나의 죽음은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위해서라 하나님은 일위일체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첫 번째 신자가 되라는 명령을 받았노라(6:162-163)

숭배와 경배를 받을 권리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있다.

나는 그대 이전에도 사도들을 보내면서 나 외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아니하니 나만을 경배하고 나에게만 복종하라 하였느니라(21:25)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명칭과 그 속성이 가진 의미는 어느 피조물의 속성에도 비유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서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들을 갖고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그것들로 하나님을 부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을 피하라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것으로 징벌을 받을 것이니라(7:180)

본 질은 하나님만이 숭배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분 외에는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말고, 어떤 것에도 간구하지 말고, 어떤 것에도 기도하지 말고, 어떤 것에도 소원을 빌지 말아야 한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완벽한 속성의 명칭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이 속성은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나

어떤 것에도 이 속성을 결부시키거나 비유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비교될 수 있는 것 아무 것도 없노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42:11)

2. 천사들(malaikah)에 대한 믿음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빛으로 창조된 불가시계의 피조물이다. 천사들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으나 정확한 숫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천사들은 오직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임무만을 갖고 창조되었다.

예수는 하나님의 종 됨 이상으로 자만하지 아니했으니 가까이 있는 천사들도 그러했느니라(4:172)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각자의 임무를 부여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각자의 임무를 수행한다.

6. 그 위에 천사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거역하지 아니하고 엄하게 집행하느니라(66:6)

천사들은 하나님께 비유되거나 견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자식을 두지도 않았다. 다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피조물로서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식을 두셨다고 불신자들이 말하고 있노
라 하나님이며 홀로 영광 받으소서 천사들은 존경받은 종들에 불과합
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행하지 아니하고 단지 하
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동할 뿐이라(21:26-27)

천사들 중에는 이름과 임무가 언급된 천사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천사들이 있지만 그들 모두를 믿어야 한다.

3. 성서들(kutub)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아담의 자손들, 즉 모든 인간이 배우
고 지켜야 할 성서들을 보내셨다. 이 성서들은 복음과 진리가 담겨 있
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서들은 모두가 일위일체 하나님의 유일
성(tawhid)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면서 그분께서 우주를 존재케 한 창
조주이므로 주권과 신성과 권세가 모두 그분의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
고 있다. 꾸란에 언급된 성서들은 다음과 같다.

1) 수흐프(suhf)

수흐프는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보낸 경전이다.

아니면 그가 모세의 성서 안에 담긴 내용을 알지 못하고 명령을 이
행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도 알지 못하였단 말이요 짐을 진자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없으며 인간은 자신이 행한 좋고 나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대가를 치르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느니라 인간이 행한 모든 것의 결과가 밝혀지며 그에 대한 완벽한 최상의 것으로 보상을 받게 되나니 최후의 목적지는 바로 주님이시라 (53:36-42)

2) 토라(taurah)

토라는 모세에게 계시된 경전이다.

내가 복음과 광명이 담겨져 있는 토라를 보내매 이슬람을 믿는 예언자들은 그것으로 유대인들을 판결하였으며 법학자들과 유대학자들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서를 보존할 의무가 있었고 그들은 그것에 대한 증언자들이었노라 유대인들이여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하찮은 대가로 나의 말씀을 매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으로 심판하지 아니한 자들은 곧 불신자들이니라(5:44)

3) 자부르(zabur: 시편)

자부르 시편은 다윗에게 보내진 경전이다.

다윗에게 시편을 내린 것과 같으니라(4:163)

4) 인질(injil: 신약성경)

인질 신약성경은 예수에게 보낸 경전이다.

나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로 하여금 그 이전에 계시된 토라의 내용을 추인하면서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 이전에 계시된 토라를 추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 복음과 광명이 담겨진 성서를 내리셨느니라 이것은 복음이요 정의에 사는 자들을 위한 교훈이라(5:46)

무슬림은 이 모든 경전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성서들이라는 것을 믿고 이 안에 언급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 이 경전들은 특정 시대의 특정 민족들을 위해 계시된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인질 (injl), 즉 성경에 언급된 예수에 관한 내용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마태복음 15:24)

꾸란은 토라와 복음서에 언급된 예언자 무함마드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예언자이자 사도인 무학자 무함마드를 따르는 자들은 그들의 기록서인 토라와 복음서에서 그를 발견하리라 그는 저들에게 옳은 것을 촉구하고 그릇된 것을 금기하며 또 저들에게 청결한 것을 허락하고 저들의 무거운 짐과 그들의 멍에들을 벗겨 줄 것이니 그를 믿고 그를

존경하며 그를 도와 그에게 계시된 빛을 따르는 자들은 번성할 것이
니라(7:157)

5) 꾸란(quran)

꾸란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꾸란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꾸란이 오기 전 왜곡되고 변질된 번역서 경전들을 폐기한다고 하셨다.

4. 예언자들(anbiya)과 사도들(rusul)에 대한 믿음

예언자와 사도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인간이다. 아담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낸 스승들이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신법을 소개하기 위해 택함을 받은 분들이요 하나님만을 숭배하고 그분께 복종하는 방법을 가르쳐 그분의 종교를 확립하는 임무를 받은 분들이다.

하나님께서 인간 중에서 많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택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신법을 확인시키고 이전에 온 원서들을 추인하도록 하셨다. 예언자의 이름과 숫자는 꾸란에 언급된 25명 외에는 알 수 없다. 정확한 것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

나는 그대 이전에도 사도들을 보냈느니라 그중에는 그대에게 언급한 자가 있었고 언급하지 아니한 자가 있었으며 어떤 사도도 하나님

의 허락 없이는 증표를 제시하지 못하였노라(40:78)

무슬림은 이들 모두를 믿어야 하고 이들 모두는 초인간적인 존재가 아니고 순수한 인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대 이전에 나로부터 계시를 받은 선임자들도 사람이었거늘 백성들이여 너희가 알지 못하면 메시지를 아는 자들에게 물어보라 나는 그들에게 음식을 먹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신을 주지 아니 했노라(21:7-8)

예수 역시 순수한 인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예수는 마리아 아들로써 사도일 뿐 그는 이전에 지나간 사도들과 다를 바 없느니라 그의 어머니는 신실한 여인이었으며 예수와 그의 어머니도 여느 인간처럼 음식을 먹고 살았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징표를 설명하였는가를 보고 그들이 어떻게 배반하는가를 보라(5:75)

한 분도 빠뜨림 없이 믿어야 한다. 선별해서 믿어서는 안 된다. 선별해서 믿는다면 그는 무슬림이 아니다.

하나님과 사도들을 불신하며 하나님과 사도들을 이간시키려 하는 자들이 말하길 우리는 일부를 믿고 일부는 믿지 않노라 그러면서 그들은 그 사이에서 어떤 길을 취하려 하노라 바로 이들이 불신자들이거늘 나는 이 불신자들을 위해 치욕스러운 징벌을 준비하여 놓았느니라

라(4:150-151)

최초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인간은 노아이고 마지막으로 택함을 받은 인간은 무함마드다.

5. 마지막 날(yaum al-aakhir)에 대한 믿음

창조주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존재는 끝이 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듯이 끝이 있다. 시작 없이 존재하는 것 없고 끝이 없이 존재하는 것 없다.

땅 위의 모든 것은 소멸하느니라(55:26)

마찬가지로 현세의 삶도 끝이 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른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사람이 죽고 나면 다음과 같은 단계가 펼쳐진다.

1) 바르자크(barzakh) 단계

죽은 후 소생되는 그 기간까지의 삶이다. 이 기간에 믿는 자는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이요 불신자는 징벌을 맛보게 될 것이다.

불길이 아침저녁으로 저들을 에워쌀 것이라 그리고 때가 되면 파라오의 백성들을 최악의 징벌로 들게 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것이라

(40:46)

2) 소생되어 부활하는 단계

하나님께서서는 죽은 모든 인간을 벌거벗은 채, 맨 발로, 할례가 되지 않는 상태로 소생시켜 부활시키신다.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 하니라 일러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노라 주님께 의해 부활되며 너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그에 대한 보상과 대가를 받게 되니라 그렇게 함이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니라(64:7)

3) 집합되는 단계

하나님께서서 모든 인간을 한 곳으로 불러 모아 계산을 하신다.

내가 산들을 사라지게 하는 날을 상기하라 그대는 노출되어진 대지를 보리라 하나님께서 모두를 불러 모을 것이며 아무도 남겨 두지 아니 할 것이니라(18:47)

4) 줄지어 하나님 앞에 서는 단계

그들은 주님 앞에 줄지어 서서 내가 너희를 최초로 창조했던 것처럼 불신자 너희는 노출된 상대로 나에게로 오니라 너희는 내가 너희

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느뇨(18:48)

5) 인간의 모든 사지가 증인을 서는 단계

저들이 불지옥에 이르면 저들의 귀와 눈과 피부는 저들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증언할 것이라 저들은 자신들의 피부에게 너희는 왜 우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느냐고 말하자 그것들이 말하길 만물이 말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을 하도록 하신 것이요 최초로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죄를 저지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이제 여러분의 귀와 눈과 피부가 여러분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저지른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르리라 생각하였을 뿐입니다(41:20-22)

6) 질문을 받는 단계

무함마드는 어느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며 하나님의 사도이자 마지막으로 온 예언자이니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시니라(33:40)

7) 시라트(sirat) 다리를 건너는 단계

천국으로 갈 사람이나 지옥으로 갈 사람 모두가 이 다리를 건너게 된다.

너희 중에 거기에 이르지 아니할 자 아무도 없나니 그것은 너희가 피할 수 없는 주님의 단호한 결정이니라(19:71)

8) 행위의 무게를 다는 단계

하나님께서서 모두를 불러 모은 자리에서 각자의 업적을 저울로 다는 단계다. 현세에서 살아 있는 동안 믿음에 근거한 업적의 무게를 달고, 하나님을 불신한 자에게는 그에 근거하여 그가 저지른 모든 것의 무게를 저울에 다는 단계다.

나는 심판의 날 공정한 저울을 준비하나니 어느 누구도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함이라 비록 겨자씨만한 무게일지라도 나는 그것을 드러내 계산하리니 계산은 나만으로 충분하니라(21:47)

9) 업적이 기록된 두루마리와 기록서에 근거하여 질문을 받는 단계

그의 기록이 오른 손에 있는 자는 분명히 편안하게 질문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기뻐하며 그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그의 기록이 뒤에 있는 자는 그의 멸망을 부를 것이니 그는 타오르는 불지옥으로 끌려가 불태워지니라(84:7-12)

10) 업적에 따라 보상과 징계를 받는 단계

현세에서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을 믿고 선행을 쌓은 자는 영원히

천국에 거주하는 보상을 받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사악한 짓을 한 자는 영원히 불지옥에 거주하면서 가혹한 징벌을 받는다.

성서의 백성들 중에서 진리를 거역한 자들과 다신을 믿는 자들은 불지옥에 떨어져 그곳에 머물게 될 것이니 그들은 가장 비참한 피조물들이라 그러나 믿음으로 선을 실천하는 자들은 가장 훌륭한 피조물로 그들을 위한 주님의 보상은 밑으로 강물이 흐르는 영생할 에덴의 천국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기뻐하시고 그들은 그분으로 기뻐하리니 그것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한 보상이니라(98:6-8)

11) 하우드(hawd)

하나님께서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허용한 저수지로 이곳의 물을 마신 자는 그 이후로 목이 마르거나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 하우드나 중재 등 사도께서 언급한 것들을 믿는 것이다.

6. 운명과 숙명(qada wa qadar)에 대한 믿음

꾸란의 아랍어 두 단어 까다(qada)와 까다르(qadar)를 완벽하게 번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독자의 이해를 위해 운명과 숙명으로 번역하고자 한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기 전과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 그리고 창조된 후 일어날 것까지 모든 알고 어떤 것을 창조하신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분의 지식과 계량에 의해 창조된다.

실로 나는 모든 것을 까다르(운명과 숙명)로 창조하느니라(54:49)

과거에 발생한 것에서부터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것 모두를 그것이 존재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다음은 까다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좋은 결과이든 나쁜 결과이든 까다르를 믿지 않는 자는 무슬림이 아니지요. 자신에게 발생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은 절대로 그를 피해가지 않고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은 그에게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티리미지)³³⁾

아이를 갖고 싶은 사람은 결혼을 한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다. 이렇게 해서 목적을 이룰 수도 있다. 그러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아이는 갖고 싶지 않고 단지 성생활만을 위해 결혼할 수 있다. 그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이가 생길 수도 있다. 즉 자신의 계획과 노력에 관계없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이미 창조주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언자께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

“사도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꾸란을 읽고 간청하고 약을 복용하면 까다르를 지연시키거나 물리칠 수 있습니까?”

33) musnad al-Imam Ahmad vol. 6, p. 441(no. of hadith 27530)

이 질문에 예언자께서 대답하시길,

“그것은 까다르에 달려 있습니다.”(무스타드라크 알-하킴)³⁴⁾

배고픔, 갈증, 추위 같은 것도 까다(qada)와 까다르(qadar)에서 온다. 배고픔을 막기 위해 먹고, 갈증을 막기 위해 마시고, 추위를 이기기 위해 따뜻하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예방되고 막을 수 없다. 그러니 까다르는 까다르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까다르를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결과에 만족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신적으로 안정이 된다. 까다르를 받아들이면 근심걱정, 불안과 초조함, 슬픔과 외로움이 없어진다. 마음의 병과 정신질환이 치료된다. 까다르를 믿으면 재앙의 결과를 편안하게 넘길 수 있고 사업실패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나 금전적 손실에 대한 절망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이미 예정된 피할 수 없는 까다르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십시오. 그렇게 함에 게을리 하지 마시오. 여러분에게 불운이나 재난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하지 마시오. ‘내가 만일 이렇게 저렇게 했다 라면...’라고 말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까다르야.

34) vol. 1, p. 85(no. of hadith 87)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야.“만일”이란 말을 쓴다면 그것은 사탄이 활동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무슬림)

까다르를 믿으면 하나님께 더 많이 의존하게 되고 피조물에 대한 두려움과 피조물들에 의해 발생하는 재난이나 재앙에 대한 공포를 제거하여 준다. 이븐 압바스가 예언자 뒤를 따라가면서 들었던 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여러분에게 몇 마디 가르쳐 주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여러분은 여러분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간구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반듯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 여러분을 도우려 해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 외에는 아무 것도 도울 수 없으며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 여러분을 해치려 해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해칠 수 없습니다. 펜은 이미 올라서고 종이는 이미 말라버렸습니다.”(티르미지)

지상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너희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내가 그것을 드러내기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이니라 실로 그것은 하나님께 쉬운 일이라 이는 너희가 언지 못한 것에 관하여 슬퍼하

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는 은혜에 관하여 자만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만하고 자만하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 하시니라(57:22-23)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지식을 얻어야 한다. 질병을 예방하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을 개발하도록 다양한 피조물을 두셨기 때문이다.

까다르를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다. 누가 예언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다.

“저의 낙타를 풀어놓고 하나님께만 의존하면 됩니까?”

이에 대한 예언자의 대답은 단호하셨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의존하라고 하셨다.

“낙타를 매어두고 하나님께 의존하십시오.”(이븐 힙반)³⁵⁾

“나무를 잘라 묶어 등에 업고 내려와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구걸했을 때 사람들이 돈을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부카리)

35) sahih ibn Hibban vol. 2, p. 510(no. of hadith 731)

31. 이슬람의 사도는 누구인가

이슬람의 사도는 압둘라(Abdullah)의 아들 무함마드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내신 사도다.

무함마드는 어느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며 하나님의 사도이자 마지막으로 온 예언자이니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시니라(33:40)

무함마드는 아랍인들만을 위한 사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사도로 택함을 받으신 분이다.

나는 모든 인류를 위한 기쁜 소식의 전달자서 그리고 경고자로 그대 무함마드를 보냈느니라 단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모르고 있을 뿐이라(34:28)

창조주 하나님을 구세주로 믿는 인간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안내하고 그렇지 않는 인간에게는 불행한 결말이 올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도록 무함마드를 보내신 것이다.

나는 그대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자비로서 보냈느니라(21:107)

무함마드는 계시를 받기 전에도 믿을 수 있는 자, 즉 아민(Amin)이란 칭호를 받을 정도로 사람들로 부터 신뢰와 칭찬을 받았다. 사람들이 오랜 여행을 떠날 때는 사람들이 무함마드에게 자신들의 모든 것을 위탁할 정도였다. 그의 진실성 때문에 주의 사람들은 그를 진실한 자란 의미의 사아디끄(saadiq)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는 결코 핑계를 대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기만하거나 누구를 속이는 일이 없었다. 그는 항상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였다.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첫 계시를 받고 내려와 아내 카디자에게 두렵다고 말하자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어느 누구도 당신을 욕되게 하지 못할 거예요. 당신은 친족관계를 잘 유지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풀어주게 될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베풀게 될 것이고, 손님들을 명예롭게 대접하게 될 것이고, 어려운 일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부카리)

첫 계시를 받은 후 13년을 메카에서 더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일위 일체의 하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을 설교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450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메디나로 떠났다. 그곳 주민들이 그를 환영하였고 그가 소개한 이슬람을 믿기 시작하였다. 메디나로 와서 63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10년 동안 나머지 계시를 받았고 메디나로 이주하여 온 후 8년째를 맞이하면서 메카를 정복하였다.

저명인사들은 무함마드에 대하여 무어라고 말하는가

독일의 시인 괴테(Goethe)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역사에서 인류의 모범이 되는 한 인간을 찾아보았다. 그는 바로 무함마드였다.”³⁶⁾

애니 베산트(Annie Besant)는 무함마드의 삶과 가르침(The Life and Teachings of Muhammad)란 그의 저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라비아 반도의 위대한 예언자의 삶 그리고 그의 인격과 성품을 연구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가 보여준 가르침의 방식과 삶의 방법에 놀라고 그에 대한 존경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가 절대자의 진정한 사도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에 대한 연구를 하면 할수록 나는 아라비아의 그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것을 느낀다.”

36) Muhammad fi al-adab al-alamiyah al-munsifah/ Muhammad Uthman Uthman, p. 20

32. 꾸란이란 무엇인가

꾸란은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전달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전의 경전들과는 다르다.

1. 꾸란은 하나님께서 보낸 마지막 경전이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꾸란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마지막 날까지 보존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14세기 지난 오늘날까지 꾸란은 일점일획도 변경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보존되어 내려오고 있다. 14세기 전의 꾸란이나 오늘날의 꾸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한국 등 전 세계 어느 시대, 어느 곳에 있는 꾸란이든 일점일획도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

내가 그 메시지 꾸란을 계시했으니 왜곡되지 않도록 내가 그것을 보호하고 보존할 것이니라(15:9)

2. 꾸란을 읽고 암기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꾸란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방법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꾸란의 한 개 철자만 읽거나 암송해도 10개의 보상을 받지요. 꾸

란의 알리프 램 mim(Alif Laam Mim)은 한 개의 철자가 아니라 알리프도 한 개의 철자요, 램도 한 개의 철자이며, mim도 한 개의 철자이지요.”(티르미지)³⁷⁾

꾸란 암기나 암송 역시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꾸란의 어떤 절도 암기하지 못하고 암송하지 못하는 자는 버려진 집과 같지요.”

꾸란에 대한 관심, 꾸란 공부와 가르침도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가장 훌륭한 사람은 꾸란을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이지요.”(부카리)³⁸⁾

3. 꾸란은 사회를 개선하고 모든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는 모든 법과 규범을 망라하고 있다.

내가 이 성서를 그대에게 계시하나니 이것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라 이는 믿는 자들을 위한 길이지요 은총이요 기쁜 소식이니라(16:89)

37) sunan al-tirmizi vol. 5, p. 175(no. of Hadith 2910)

38) sahih al-bukhari vol. 4, p. 1919 (no. of hadith 4739)

4. 꾸란은 아담에서부터 무함마드에 이르기까지 예언자들과 사도들에 관한 사실을 입증하는 문헌이다.

5. 꾸란은 인류를 평화와 행복으로 안내하고 위선과 거짓의 암흑으로부터 진리의 이슬람으로 안내하기 위해 내려진 것이다.

알리프 램 라 꾸란은 내가 그대에게 계시한 한 권의 성서이거늘 이것으로 백성들을 주님의 허락에 따라 암흑으로부터 권세와 찬양의 길로 안내할 것이니라(14:1)

사람들은 꾸란에 대해 무어라고 말하는가

두란트(Durant.W)는 문화의 이야기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꾸란이 14세기 동안 무슬림들의 암기를 통해서 원본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는 것은 기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꾸란이 그들의 인격과 성품 형성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꾸란은 쉬운 교리로 사치스러운 장식과 외형적인 예배의식을 멀리하면서 우상과 미신숭배를 철저히 배척하고 있다. 사회통합의 제도와 규범뿐만 아니라 윤리와 도덕규범의 규범까지 망라하고 있다. 지구촌 어느 곳 어느 시대에서도 꾸란처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책은 찾아볼 수 없다.”³⁹⁾

밤에 스스로 엎드려 예배하거나 서서 기도하며 내세를 두려워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예배하는 자가 그렇지 아니한 자와 같을 수 있느냐 일러 가로되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같을 수 있느냐 실로 이해하는 자들은 이 교훈을 받아들이느니라(39:9)

믿는 자들이여 너희 모임에 공간을 두라고 얘기를 들을 때면 그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 큰 것을 주실 것이니라 그리고 일어서라는 말을 들을 때면 일어서라 하나님께서 더 높이 일으켜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와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 더 높은 곳을 주실 것이니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느니라(58:11)

39) p.64

33. 이슬람과 지식

이슬람은 지식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종교다. 지식이 있어야 무지를 타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는 자들과 모르는 자들이 같을 수 있느냐?”(39:9)

“하나님께서서는 믿음을 가진 자와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 더 높은 곳을 주실 것이니라.”(58:11)

그래서 꾸란은 지식을 더하여 줄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주여 저에게 지식을 더하여 주소서.”(20:114)

이슬람은 학자들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권리를 부여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어른을 존경하지 않는 자와, 어린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와, 학자들의 권리를 알지 못하는 자는 우리의 공동체 구성원이 아닙니다.”(아흐마드)⁴⁰⁾

꾸란은 천국으로 안내하는 성서로 연구, 배움, 가르침을 중요시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 길을 가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천국으로 가는 길을 견게 할 것입니다. 천사들은 지식을 추구하는 그에게서 기쁨을 얻고 그들의 날개를 낮추지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하물며 물속에 사는 고기 한 마리까지 학자들을 위한 관용을 추구합니다. 학자들이 예배하는 자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비유하자면 온달의 빛이 다른 유성들의 빛보다 더욱 밝은 것과 같지요. 예언자들은 학자들에게 아무런 재산과 재물을 남기지 않았지만 학자들은 그분들의 상속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들께서 학자들에게 지식을 상속 재산으로 남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학자들로부터 지식을 취하는 자는 큰 행운을 갖게 될 것입니다.”(이븐 힌반)⁴¹⁾

40) musnad al-imam Ahmad vol. 5, p. 323 (no. of hadith 22807)

41) sahih ibn Hibban vol. 1, p. 289 (no. of hadith 88)

34. 이슬람과 재물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잠시 동안 위탁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위탁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용한 건전한 수단과 방법에 의해 취득한 소득이라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심판의 날에는 어떤 인간도 다음 사항에 대한 계산이 끝나지 아니하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현세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냈으며, 자신의 지식을 어떻게 사용했으며, 취득한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으며, 젊은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계산이 끝나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지요.”(티르미지)⁴²⁾

이슬람은 자기 자신과 부양해야 할 가족을 위해 합법적 방법에 의한 재물 취득을 장려하고 취득한 재물은 바르게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합법적으로 취득하여 바르게 사용하면 축복을 받는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되

42) sunan al-Tirmizi vol. 4, p. 612 (no. of hadith 2417)

요. 각자에게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신에게 유익하도록 활용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십시오. 그렇게 함에 소홀이 하지 마시오.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만일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였다면 그러지 안했을 텐데!’라고 말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까 다르이구나’라고 말하십시오. ‘만일’ … 했더라면 라고 말하면 그것은 사탄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무슬림)⁴³⁾

현세와 내세를 위해 의무적으로 내야할 자카트(zakat) 외에는 우선적으로 자신과 가족을 위해 재물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준 것으로 내세의 안식처를 구하라 그리고 현세에서 너의 몫을 망각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을 베푸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것이라 그리고 땅 위에 해악을 퍼뜨리지 말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해악을 퍼뜨리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 하시니라(28:77)

이 내용과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의로운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라야 깨끗합니다.”(이븐 힌반)⁴⁴⁾

이슬람은 재물과 돈의 낭비를 금지한다.

43) sahih Muslim vol. 4, p. 2052 (no. of hadith 2664)

44) sahih ibn Hibban vol.8, p. 6 (no. of hadith 3210)

친척과 불쌍한 사람과 여행자에게도 자선을 베풀되 낭비하지 말라
실로 낭비는 사탄의 친구로 사탄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
르니라(17:26-27)

나가면서

나는 본서를 준비함에 있어 간결하고 간략하게 집필하려고 노력하였다. 본서는 이슬람의 개요를 살짝 들여다보고 싶은 독자들과 이슬람을 알고 싶은 독자들 그리고 아직 종교를 선택하지 않은 독자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이슬람을 왜곡하는 자들에 의해 세뇌되어 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통해서 만끽할 수 있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나는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자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결정으로 자신의 종교와 미래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으로 선택된 종교이어야 자신을 구원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지상의 사람들을 따른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길에 있는 그대를 유혹할 것이라 그들은 추측을 따르고 거짓을 말하고 있을 따름이니라(6:116)

보상의 날 유혹했던 자들은 추종자들을 부인하고 거절할 것이다.

추종을 받던 자들이 그들을 따르던 추종자들을 부인하나니 그들은 징벌을 맞볼 것이며 그들 사이의 모든 관계는 단절될 것이니라 (2:166)

창조주 하나님께서 각 인간에게 베푼 지혜와 지식에 근거하여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허위인지를 자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판단에 따른다면 편견이 되고 맹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을 따르며 사도에게로 오라하니 우리는 우리 조상의 종교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더라 그러나 그들의 선조들조차도 종교와 진리에 관한 지식이 없었고 안내도 받지 못했느니라(5:104)

희망하는 자에게 기회는 열려있다. 그러나 이슬람의 실상을 소개 받을 수 있는 적절한 경로가 중요하다. 무슬림이라고 해서 모두가 이슬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슬람에 대한 실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이슬람 서적이 라고 해서 정확한 이슬람의 실상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슬람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는 학자들의 가르침이나 이분들이 저술한 저서들을 통해서 정확한 이슬람의 실상을 알아야 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예언자의 말씀이다.

“유대교인들은 71개 파로 분열되고, 기독교는 72개 파로 분열되며, 나의 공동체는 73개 파로 분열될 것입니다. 이들 중에서 한 개의 파를 제외한 모두가 불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한 개의 파는 바로 나와 나의 교우들이 함께 하는 파입니다.”

끝으로 이슬람에 관하여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은 독자가 있다면 본서 마지막 쪽에 언급된 이슬람 센터로 연락주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예언자 무함마드와 그분의 가문과 그분과 함께 하였던 교우들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최영길 교수의 이슬람 및 아랍어 총서

▷ 저서 및 역서

01. 아랍어를 배우는 길(1978. 11, 이슬람문화센터, 207쪽; 사우디)
02. 생활아랍어 회화(1982, 도서출판 콘바사폰, 617쪽)
03. 하디스 40선(1982. 12. 24, 신생사, 184쪽)
04. 이슬람의 거래와 관습(1979, 이슬람문화센터, 173쪽; 사우디)
05. 기본아랍어회화(1980. 9. 16, 어학사, 255쪽; 서울)
06. 아랍어문법해설(1982. 2. 1, 명지대 아랍어문학과, 212쪽)
07. 이슬람의 생활규범(1985, 명지대출판부, 450쪽)
08. 16억 이슬람인의 역사와 문화(1996, 송산출판사, 465쪽)
09. 이슬람문화사(1990, 송산출판사, 434쪽)
10. 꾸란의 이해(1995, 성천문화재단, 207쪽)
11. 꾸란해설(1989, 송산출판사, 1370쪽)
12. Arabic Language I (1986,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200쪽; 공저)
13. Arabic Language II (1988,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200쪽; 공저)
14. 이슬람문화의 이해(1997. 2. 28, 신지평, 252쪽 ; 서울)
15. 성꾸란 의미의 한국어 해설(1997. 4. 24, 파하드 국양 꾸란 출판청, 1403쪽; 사우디)
16. The Holy Quran -Korean translation of the meanings, commentary and reading(1997, Anyang Rabita Masjid)
17. Drusu al Lugat al Arabiya(1997, Islamic University, Medina; 사우디)
18. 예언자 무함마드의 생애(98. 7. 27, 신지평, 600쪽)
19. Islamic Thoughts(1998. 10. 1, 송산, 232쪽 ; 서울)
20. The Expanse of the Religious Thoughts(98. 10. 1, Songsan, 222쪽)
21. 아랍어-한글사전(99. 3. 20, 송산, 1630쪽)
22. 이슬람의 이해(99. 3. 20, 신지평, 416쪽)
23. 이슬람문화(99. 9.5, 알림 도서출판, 434쪽)
24. 이슬람 교리의 법규(2000. 4. 10, 알림 도서출판, 145쪽)
25. 라마단(2000. 11. 12, 알림 도서출판, 370쪽)

26. 무함마드 어록(2001. 6. 27, 리야드, 사우디아라비아, 194쪽)
27. 이슬람(단식과 성지순례; 2001, 10. 30, 알림, 239쪽)
28. 이슬람의 전통과 생활관습(2002.11.25, 알림, 384쪽)
29. 꾸란 단어와 어휘해설(2003, 알림,)
30. 꾸란과 이슬람(2004.10.15, 알림, 181쪽)
31. 이슬람의 위인들(2004.11.05, 알림, 235쪽)
32. 예언자 무함마드(2005. 02. 28, 명지대학교 출판부, 130쪽)
33. 아랍어(2005 ,02.28, 명지대학교 출판부, 244쪽)
34. 무함마드와 이슬람(2005. 03. 05, 도서출판 알림, 282쪽)
35. 삼위일체 아랍어(2005. 09. 01, 도서출판 알림, 299쪽)
36. 꾸란 어휘사전(2005.12.10, 도서출판 알림, 11285쪽)
37. 이슬람과 성서의 종교(2006. 02.28, 명지대학교 출판부, 242쪽)
38. 이슬람국가에서의 비무슬림의 권리(2006, 05, 15, 알림, 221쪽)
39. 인간 무함마드(2006,07,25, 알림, 578쪽)
40. 실전 아랍어(2006, 08, 10, 명지대 출판부, 255쪽)
41. 아랍어와 아랍문화((2007, 02, 28, 명지대 출판부, 212쪽)
42. 꾸란과 해설(2007,06,01, 파하드 국왕 꾸란 출판청, 905쪽)
43. 이슬람(원리와 개론; 2007. 9.1, 도서출판 알림 240쪽)
44. 한국인을 위한 삼위일체 아랍어((2007, 08, 20, 명지대 출판부, 246쪽)
45. EBS 입에서 톡 아랍어(2008. 2. 1, 도서출판 문예림 262쪽)
46. 다양한 이슬람 이야기 제1권(2008. 2. 15, 알림, 297쪽)
47. 다양한 이슬람 이야기 제2권(2008. 7. 10, 알림, 298쪽)
48. 다양한 이슬람 이야기 제3권(2008. 10. 25 알림, 287쪽)
49. 다양한 이슬람 이야기 제4권(2008. 12. 5 알림, 286쪽)
50. 다양한 이슬람 이야기 제5권(2009. 4. 24 알림, 244쪽)
51. 꾸란과 성서의 예언자들(2009. 5. 4 살림, 335)
53. 이슬람교가 태어난 석유왕국 사우디아라비아(2009. 그레이트북)
54. Sahih Al-Bukhari가 수집한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록 제1권(2010. 03. 10, 알림, 443쪽)
55. Sahih Al-Bukhari가 수집한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록 제2권(2010. 07. 05, 알림, 451쪽)
56. 꾸란 주해(2010. 05. 25, 세창, 946)

57. Sahih Al-Bukhari가 수집한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록 제2권(2010. 07. 05, 알림, 512쪽)
58. 이슬람문화(2010. 08. 25, 알림, 512쪽)
59. 이슬람의 허용과 금기(2011. 07.30, 세창 408쪽)
60. 한국어-아랍어 소사전(2012, 04, 25; 문예림 193쪽)
61. 하람 성원(2012,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문화원)
62. 예언자 성원(2012,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문화원)
63. 키스와(2012,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문화원)
64. 한글 - 아랍어 소사전(2012. 12, 문예림 200쪽)
65. 나의 이슬람문화 체험기(2012, 05, 30: 한길사 277쪽)
66. 노래로 배우는 아랍어(2013.05 30 문예림 246쪽)
67. 초보 무슬림을 위한 길잡이(2013.06.30: 사우디아라비아 킹사우드 대학교 통번역센터, 376쪽)
68. 아랍어-한국어, 한국어-아랍어 입문소사전(2014.01.03, 문예림 1192)
69. 성꾸란, 낭독법칙, 의미, 해설(2014. 알림, 30권 시리즈)
70. 인생교과서 무함마드(2015, 21세기 북스, 212)
71. 이슬람과 에티켓(2015, 사우디아라비아 275쪽)
72. 이슬람의 로맨스
73. 행복으로 가는 길

- **학력 및 전공**

- 한국외국어대학교(아랍어 전공: 문학사)
- 한국외국어대학교(아랍어 전공: 문학석사)
- 사우디 아라비아 왕립 이슬람대학교 (이슬람학 전공)
- 수단 움두르만 국립 이슬람대학교(이슬람학 전공: 문학박사)

- **수상**

- 1970년 박정희 대통령 메달 수상
- 1986년 서울 아시아 올림픽 조직위원회 포상
- 2009년 사우디아라비아 압둘라 국왕 국제번역상 수상
- 2013년 박근혜 대통령 표창
- 2014년 박근혜 대통령 녹조근정훈장

- **경력**

- 사우디 아라비아 제다 이슬람문화원 교수
- 사우디 아라비아 이맘 무함마드 이븐 사우드 왕립 대학교 객원교수
- 성천문화재단<동서인문고전강좌> 교수
- 명지대학교 인문대학장
- (주)IMEX 이슬람 콘텐츠 개발 자문 및 검수위원
-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이슬람회의기구
집행위원(말레이시아)
- (서울대, 서강대 강사
- LG전자 자문교수
- 사단법인 그린레이저 이사장

시작과 끝 Bidayah wa Nihayah

인쇄일 | 2016년 7월

발행일 | 2016년 7월

지은이 | Prof. Dr. Abdurrahman Al-Sheha 저

옮긴이 | 최영길

발행처 |